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이라크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이라크 공화국(Republic of Iraq)
면적	441,839 km ² (자료원 : EIU , 2022년 자료 기준, 호수 등 면적 포함)
수도	바그다드(Baghdad)
민족(인종)	
언어	아랍어(공용어), 쿠르드어(쿠르디스탄 지역에 한해 사용), 기타 언어는 해당지역에서 활용
종교	이슬람교(97%: 시아파 60%, 아랍계 수니파 20%, 쿠르드계 수니파 15%), 기독교 등 3%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로 사막성 기후로, 고온 건조한 여름과 온화한 겨울이 특징 연간 강수량 170mm, 7~8월 최고기온 50도 이상, 1월 4~16도, 또한 봄철 모래바람이 불어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대부분의 강우는 우기인 10~4월 사이에 내리며, 동 기간 중 평균 강우량은 100~170mm이다. - 그러나 최근 강우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터키 이란 등 인근국의 댐 건설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북부 산악 지역은 겨울에 추운 날씨로 눈도 내리기도 하며 이른 봄 폭설이 오기도 하며, 때로는 중남부에 홍수를 야기하기도 한다. 서부지역은 일반적 사막기후이나 중동부 지역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등 상대적으로 생활하기에 적합하여 대부분의 인구가 북부, 중동부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국가수반): Barham Salih(취임일 2018년 11월)○ 총리(정부수반): Mustafa Al-Kadhimi(취임일 2020년 5월) - 실질적 국정운영 권한은 총리가 보유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독일 등과 비슷하게 국가수반으로서의 상징성이 강함 <p>* 2021년 10월 10일 총선이 실시 되었으나 몇 차례의 시도에도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2022년 하반기 현재에도 정부 구성 관련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p>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89-07-09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항공운수협정	1985-05-01	양국 간 항공기 운항 협력	
무역경제협정	1983-03-01	양국 간 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	
문화협정	1985-09-01	양국 간 문화예술교류 협력	

한국교민 수

890 명 (자료원 : 외교부(2022.09.18), 주재원 등을 포함한 전체 체류 숫자)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2022년은 한-이라크 수교 33주년이며, 그동안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통해 고위급 협력이 지속되어 왔다. 다만 공동위는 ISIS, 반정부 시위 등으로 미루어지다가 최근에는 미-이란 군사대치, 코로나 확산 등으로 잠정 연기되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 총선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신정부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각종 대외관계 등에 있어 업무 추진이 더디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라크는 전쟁 후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는 등 이종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아져 2019년 6월 24일 ~6월 26일 요르단 암만에서 한-이라크 이종과세방지협정 제2차 협상이 개최되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이로 인해 한-이라크 이종과세방지협정의 체결로 향후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감소하고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등 진출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한 협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세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양국 간 기본적인 의견조율은 진행되었으나 협정체결 및 발표는 2022년 9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라크가 현재 몇몇 국가들과의 이종과세 방지 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과의 협정 체결도 기대되고 있다.

* 이종과세방지협정 합의사항

① (사업소득)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이종과세협정 미체결 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 사업장 구성요건 :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사업장(9개월 이상 지속), 용역제공(6개월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30일 이상 지

속) 등

② (투자소득) 우리나라가 진출국 입장임을 감안, 이라크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현지 세 부담 최소화

* (이자) 이라크 국내세율 15% → 5%, (사용료) 이라크 국내세율 10% → 5%

③ (조세회피 방지)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 가능

(BEPS 논의내용 반영)

④ (과세당국 간 협력 강화)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목적의 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또한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

2017년 3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한 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2012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정부 간 공식 경제협력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공동위에서 양국은 ISIS 사태로 위축되었던 인프라, 산업, 보건, 금융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재가동하고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적극 진출키로 협의했다.

이후 수교 30주년을 맞는 2019년 9월 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가 한국에서 개최해 인프라, 금융, 에너지, 보건, 노동, 환경,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미-이란 군사대치, 코로나 확산으로 잠정 연기되었는데 코로나 상황 안정될 경우 한국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2019년 유가가 회복되면서 이라크 전후 재건복구사업 및 사회기반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국제 수요감소로 인해 유가가 급락하면서 국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OPEC+ 감산합의 결과로 유가가 회복되었으나 전년 대비 50% 수준에 불과해 2020년에는 각종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금년 2분기부터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재정 여력 또한 증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후 프로젝트추진 및 경제개혁 조치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의 경우 저유가 등으로 인해 GDP가 10% 이상 감소하였고(World Bank 기준 -15.7%) 환율 상승 등을 통해 재정적자에 대응하려는 노력까지 이루어 졌다.

그러나 2021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EIU 기준 2.8%) 2022년 현재 고유가로 인해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 주요기관이 밝힌 2022년 이라크 GDP 성장 전망은 IMF 9.5%, EIU 5.5 % 등이며, 9월 현재 6% 이상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IMF는 이라크의 향후 경제성장률을 2023년 5.7%, 2024년 2.7%, 2025년 2.6%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

○ 2007년 8월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납치사건의 여파로 위험지역 여행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라크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이라크에 대한 한국인의 입국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 연장돼 사안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부여한 점을 제외하면 종전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하지만 2018년 11월 이후 바그다드에서 K-Pop 커버댄스를 포함한 한국문화페스티벌이 이라크 자체적으로 개최되어 한국문화에 대한 이라크인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K-pop을 전문으로 하는 파워유튜버의 이라크 팔로워가 15만 명에 달할 정도로 한국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한국 식품도 소규모지만 판매되기 시작하는 등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치안이 안정화될 경우 문화교류는 급속히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12월 한국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바그다드 소재 대형 백화점에 매장을 오픈 하면서 2020년 본격적으로 한류를 활용해 화장품 판매를 촉진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2021년 바그다드 및 쿠르디스탄 지역에 매장을 오픈 하였고 다른 한국 메이커들도 이라크 에이전트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 등 한국제품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화장품 및 주요 한류 스타 관련 상품이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 2022년 현재 자동차,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은 이라크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뿐 아니라 미용시술용 필러, 미용기기 등으로 우리 제품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동시에 한국 화장품, 가전 등의 인기를 활용한 모조품도 활개 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4.7	5.8	-15.7	5.9	
명목GDP (십억\$)	226.87	233.95	169.49	209.51	
1인당 GDP (PPP, \$)	11,400.59	11,967.72	9,951.46	10,702.11	
1인당 명목 GDP (\$)	5,950.84	5,981.1	4,223.22	5,088.16	
정부부채 (% of GDP)	47.8	45.4	84.2	59.4	
물가상승률 (%)	0.4	-0.2	0.6	6	
실업률 (%)	13	12.9	14.1	14.2	
수출액 (백만\$)	90,944	86,051	59,480	80,611	
수입액 (백만\$)	36,508	39,294	36,254	41,008	
무역수지 (백만\$)	54,436	46,757	23,226	39,603	-
외환 보유고 (백만\$)	64,719	68,018	54,416	63,939	
이자율 (%)	4	4	4	4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1,182	1,182	1,450	1,450	

<자료원 : IMF, EIU, World Bank, 이라크 중앙은행 등>

나. 경제 동향

2021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에 따르면 이라크 원유 매장량은 약 1,450억 배럴로 세계 4위(오일샌드 제외), 중동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이어 원유 매장량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수출의 99%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의존 경제체제로 국제유가에 따라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작년까지 저유가로 인해 주요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컸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 수출증대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되어 각종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정부예산은 배럴당 56달러, 388만 배럴/일 원유수출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對이란 제재에 따른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 및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급락으로 원유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대폭 상승했다. 남부 바스라 원유 수출물량은 하루 평균 360만 배럴을 기록했는데 국제유가 유지를 위해 OPEC의 감산합의로 인해 자체 원유수출 목표였던 400만 배럴/일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최고의 한해를 구가하였다.

2020년에는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해 2019년 예산을 준용하였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함에 따라 글로벌 수요감소의 여파가 원유 시장에도 영향을 줘 공급과잉에 따라 유가가 급락해 원유 수출로 인한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46.8% 감소하였다. OPEC은 유가회복을 위해 감산합의를 하였으나 이라크는 이를 준수하지 못했는데 (할당량 359만 배럴/일) 이는 급감으로 6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및 연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원유증산 및 수출확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내외 차입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원유수출이 국가재정수입의 90%, GDP의 50%를 차지하는 구조상 유가하락은 경제 후퇴를 의미해 2020년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정부 예산을 배럴당 45달러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재정 여력이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경제 여건은 나아지고 있으며, IMF 통계에 따르면 GDP 성장률이 5.9%에 이르러 지난해의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해 상반기 평균 수출 단가가 배럴당 102.9 달러로 2020년의 38.41 달러 2021년의 68.38 달러에 비해 크게 상승. 이로 인해 외화 보유량이 연말까지 900억 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다만 2021년 10월 선거 이후에도 2022년 9월 현재까지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쿠르드자치정부와의 석유판매에 관한 분쟁 등으로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경제 전망

2022년 이라크의 경제회복은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OPEC+의 감산 완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수출량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나 유가 회복으로 인해 국가 수입의 증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다른 경제 부문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호조요인)

- 고유가로 인한 수익 증대
(2020 평균 수출유가) 38.41달러/배럴 (2021 평균 수출유가) 68.38달러/배럴 (2022 6월 기준 평균 수출유가) 112.21 달러
- 코로나 사태 완화로 인한 서비스 부문 성장

○ (부진요인)

- 2021년 10월 총선 실시 후에도 2022년 9월 현재까지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정치적 불안정성
- 반군 등으로 인해 여전히 지속되는 사회적 혼란 및 부패
- 비석유 부문의 낙후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주요 기관들은 이라크가 2021년의 플러스 전환에 이어 연말까지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IU +5.5%, IMF 9.5%)

또한 2023년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 이후 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확장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IU) (2023년 + 4.2%, 2024년 2.5%) 또한 정치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 회복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IMF) 2023년 5.7%, 2024년 2.7%, 2025년 2.6%로 점차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인도	23,037,529,260
2	중화인민공화국	22,466,085,348
3	미국	12,125,183,170
4	대한민국	9,569,139,580
5	그리스	5,370,585,916
6	이탈리아	4,533,803,910
7	싱가포르	3,622,176,334
8	네덜란드	2,660,282,401
9	스페인	2,135,648,624
10	Other Asia, nes	1,769,442,37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23,806,287,136
2	인도	22,084,789,933
3	대한민국	7,994,633,846
4	미국	7,215,053,126
5	이탈리아	5,306,924,120
6	그리스	5,095,448,273
7	싱가포르	3,941,441,151
8	터키	2,667,892,847
9	네덜란드	2,362,625,375

10	스페인	2,111,793,108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9,253,009,969
2	인도	16,172,883,750
3	터키	8,183,866,628
4	대한민국	4,268,273,628
5	미국	3,266,335,814
6	이탈리아	2,542,459,894
7	그리스	2,283,525,700
8	싱가포르	1,813,541,666
9	스페인	992,561,940
10	Other Asia, nes	792,195,112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아랍에미리트	11,019,731,559
2	터키	9,232,352,027
3	중화인민공화국	7,913,525,719
4	이란	7,642,378,383
5	대한민국	1,902,382,184
6	인도	1,851,147,202
7	미국	1,261,254,543
8	독일	852,071,029
9	네덜란드	663,465,276
10	우크라이나	627,375,38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아랍에미리트	13,531,832,164
2	터키	10,031,593,170
3	중화인민공화국	9,468,182,881
4	인도	2,015,244,462
5	대한민국	1,873,499,561
6	미국	1,209,325,054
7	독일	1,135,692,087
8	일본	740,093,836
9	브라질	657,159,732
10	이탈리아	614,403,25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0,910,192,610
2	터키	8,941,929,656
3	인도	1,452,535,846
4	독일	1,041,395,545
5	대한민국	927,240,725
6	미국	729,326,415
7	이탈리아	615,075,063
8	우크라이나	570,582,060
9	브라질	556,726,655
10	네덜란드	427,110,257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9,000,832,589
2	271019	기타	3,503,356,881
3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382,774,790
4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38,699,106
5	080410	대추야자	107,092,950
6	271320	석유역청(瀝靑)	70,303,844
7	271119	기타	50,295,798
8	251710	자갈 · 왕자갈 · 쇠석(碎石)[콘크리트용 · 도로포장용 ·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6,720,467
9	740329	그 밖의 구리합금[제7405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43,980,402
10	760120	알루미늄 합금	33,472,210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1,879,673,583
2	271019	기타	3,974,755,280
3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538,134,790
4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26,500,453
5	271320	석유역청(瀝靑)	384,675,390
6	080410	대추야자	367,878,494
7	271119	기타	37,771,355
8	740329	그 밖의 구리합금[제7405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33,132,150
9	271490	기타	22,736,625
10	47071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 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 · 판지로 만든 것	13,587,430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0,001,155,739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7,940,022,519
3	271019	기타	3,439,001,259
4	271320	석유역청(瀝靑)	332,008,601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229,643,306
6	080410	대추야자	81,063,388
7	271119	기타	47,456,940
8	740329	그 밖의 구리합금[제7405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28,754,047
9	890120	탱커(tanker)	20,759,902
10	720610	잉곳(ingot)	13,759,863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519,069,256
2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2,266,570,971
3	240220	궤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653,076,902
4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481,952,856
5	271111	천연가스	1,045,461,602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77,123,775
7	100630	경미(연마 ·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868,970,345
8	271019	기타	746,445,267
9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641,988,215
10	300490	기타	582,699,03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017,066,637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007,624,476
3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2,497,827,010
4	240220	퀄런(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280,936,146
5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072,927,212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985,284,213
7	100630	정미(연마 ·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856,135,654
8	271019	기타	724,572,648
9	300490	기타	648,972,409
10	841510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503,378,678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82,761,617
2	100630	정미(연마 ·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687,964,586
3	300490	기타	557,025,197
4	841510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452,935,656
5	1101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444,416,185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15,227,750
7	151211	조유(粗油)	368,734,101
8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345,150,856
9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34,329,901
10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331,648,095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1,912	9,569	-7,657
2019	1,945	7,995	-6,050
2020	935	4,268	-3,333
2021	986	5,331	-4,345
2022	755	6,039	-5,28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2	경유	0	0	0
2	7411	승용차	175	0	175
3	7412	화물자동차	216	0	215
4	7420	자동차부품	90	0	90
5	8352	축전지	66	0	66
6	3203	타이어	17	0	16
7	7111	원동기	33	0	32
8	7131	공기조절기	9	0	8
9	8147	의료용전자기기	14	0	13
10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0	0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2	경유	177	0	177
2	7411	승용차	129	0	129
3	7412	화물자동차	114	0	114
4	7420	자동차부품	70	0	70
5	8352	축전지	29	0	29
6	3203	타이어	18	0	18
7	7111	원동기	18	0	18
8	7131	공기조절기	15	0	15
9	8147	의료용전자기기	14	0	14
10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14	0	1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4,012	-4,012
2	1335	중유	0	836	-837
3	1334	나프타	0	480	-480
4	7461	선박	20	0	20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3	-3
6	8151	계측기	3	0	2
7	1332	경유	0	0	0
8	8146	X선및방사선기기	2	0	2
9	8425	자동화기기	0	0	0
10	8147	의료용전자기기	14	0	1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5,384	-5,384
2	1335	중유	0	557	-557
3	1334	나프타	0	89	-89
4	7461	선박	0	6	-6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3	-3
6	8151	계측기	0	0	0
7	1332	경유	177	0	177
8	8146	X선및방사선기기	3	0	3
9	8425	자동화기기	0	0	0
10	8147	의료용전자기기	14	0	1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전압차단기		
HS Code	853620	수입액('20/US\$천불)	41,528
수입관세율(%)	15%	대한수입액('20/US\$천불)	5,806
선정사유	600V 이하의 제품들은 220V 전기가 공급되는 어디에서든 사용가능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음.		
시장동향	가정 및 상업용 공사 증가로 수요 확대 중		
경쟁동향	중국, 인도 및 UAE 제품과 경쟁		
진출방안	중동 주요 전시회 참가, 이라크 내 주요 건축자재 딜러 발굴 및 에이전트 지정을 통한 수출		
품목명 2	에어컨		
HS Code	841510	수입액('20/US\$천불)	693,709
수입관세율(%)	15%	대한수입액('20/US\$천불)	7,199
선정사유	길고 더운 여름 기후로 인해 사계절 수요 존재		
시장동향	타 소비재와 달리 가격에 덜 민감한 편		
경쟁동향	중국 및 터키 제품과 경쟁		
진출방안	바그다드 내 Karrada 지역 등에 소재한 주요 유통기업 발굴을 통한 시장진출		
품목명 3	청소기		
HS Code	842489	수입액('20/US\$천불)	8,613
수입관세율(%)	15%	대한수입액('20/US\$천불)	203
선정사유	건물 리노베이션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시장동향	관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경쟁동향	중국, 터키산 및 독일 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		
진출방안	삼성, LG 등 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바그다드 Sinak 지역에 위치한 주요 유통기업 발굴 및 두바이 등의 관련 전시회 활용		
품목명 4	타이어		
HS Code	401110	수입액('20/US\$천불)	211,631
수입관세율(%)	5%	대한수입액('20/US\$천불)	4,020
선정사유	자동차 구매 증가 및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수요가 높음		

시장동향	현재까지는 저가 제품선호도가 높음		
경쟁동향	중국 등 저가 제품이 주도 중		
진출방안	자동차 전문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유력 유통망 발굴을 통한 진출		
품목명 5	애완동물식품		
HS Code	230910	수입액('20/US\$천불)	5,569
수입관세율(%)	10%	대한수입액('20/US\$천불)	-
선정사유	애완동물 증가로 관련 수요도 증가하여 전망이 밝음		
시장동향	현재까지는 공급이 부족		
경쟁동향	주로 터키 및 유럽제품이 시장 차지		
진출방안	전문 에이전트 발굴이 필요		
품목명 6	문구		
HS Code	392610	수입액('20/US\$천불)	7,764
수입관세율(%)	5%	대한수입액('20/US\$천불)	10
선정사유	오프라인 수업 재개 시 수요 증가 예상		
시장동향	고가 브랜드 및 저가 브랜드 혼재		
경쟁동향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 및 독일 제품이 경쟁		
진출방안	한류를 활용하여 주요 도매상 발굴		
품목명 7	변압기		
HS Code	850431	수입액('20/US\$천불)	14,563
수입관세율(%)	15%	대한수입액('20/US\$천불)	12
선정사유	전력 관련 설비의 보수 수요 높음		
시장동향	저가 및 고가 제품의 혼재		
경쟁동향	중국, 터키 및 독일, 이탈리아 제품이 주로 경쟁		
진출방안	EPC 기자재 납품 기업 및 도매상 발굴을 통한 진출		
품목명 8	서스펜션 등		
HS Code	870899	수입액('20/US\$천불)	300,789
수입관세율(%)	15%	대한수입액('20/US\$천불)	51,175
선정사유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서스펜션 및 완충장치 수요가 높음		
시장동향	차량 수 확대에 따라 시장도 성장 중		
경쟁동향	중국산과 한국산이 시장을 지배		

진출방안	국내외 상담회 활용을 통한 주요 에이전트 발굴		
품목명 9	태양광시스템		
HS Code	850431	수입액('20/US\$천불)	14,436
수입관세율(%)	15%	대한수입액('20/US\$천불)	12
선정사유	정부의 적극적인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로 수용 증가		
시장동향	주요국 대형 기업들에 의해 프로젝트가 주도		
경쟁동향	중국, 터키, 독일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진출방안	전력부 입찰 참가 및 주요 EPC기업 협력		
품목명 10	화장품		
HS Code	330499	수입액('20/US\$천불)	94,867
수입관세율(%)	10%	대한수입액('20/US\$천불)	4,253
선정사유	기초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한국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류 등으로 인기가 높음		
시장동향	국내생산이 거의 없어 유럽, 인근국 등 제품이 경쟁		
경쟁동향	프랑스, 터키, 레바논 등		
진출방안	현지 주요 화장품 유통망 등과의 협력 필요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건설 플랜트
선정사유	주거단지 건설 등 사회 인프라 구축 활성화 예상
시장동향	어렵게 구성된 신정부, 전후 재건 및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 등 사회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
경쟁동향	막대한 자금력의 중국, 일본 등이 주 경쟁자이며 최근에는 프랑스, UAE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
진출방안	수은의 자금활용, 주요 기업과의 컨소시엄 등 상황에 맞춘 진출 방안 구성 필요
품목명 2	무인보안 시스템
선정사유	치안 불안으로 경비원 활용 등의 보안 비용이 매우 높음
시장동향	대부분 경비업체를 통해 경비원을 고용하는 시스템
경쟁동향	대체로 경호를 겸하는 유럽계 기업들이 장악
진출방안	현지 보안업체와 협력하여 경호가 필요없는 현지시설 대상으로 진출 노력

품목명 3	병원관리
선정사유	기존 의료 설비의 노후화로 꾸준한 수요 발생
시장동향	KOICA의 중환자 재활병원 기증사업 등으로 한국산에 대한 인식 개선 중
경쟁동향	현지 의사들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유학파로 유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진출방안	의료계 권위자가 참가하는 세미나, 주요 딜러가 주최하는 시연회 등을 활용한 진출
품목명 4	피부 관리 서비스
선정사유	최근 몇 년간 바그다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부관리 시설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미용에 관심이 높음
시장동향	현재까지 한국식의 피부과는 부재하기 때문에 피부관리숍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경쟁동향	유명 블로거 등을 중심으로 피부관리숍을 오픈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경쟁이 심한 편임
진출방안	전문교육시설을 졸업한 인력, 화장또는 피부 전문가의 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의 경우 직접숍을 운영하기 보다는 보톡스 등 피부관리 제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데 주력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전문 에이전트 또는 유명 블로거 등과의 협업이 필요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범아랍자유무역 지대(GAFTA)	14개국	1997-02-17	1998-01-01	아랍연맹 회원국 22개국 중 14개국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 르,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UAE)
경제기술협력협 정(MOU)	터키	2009-10-15	2010-01-01	자유무역지대건설, 자유무역협정의 경제 및 상업적 효과를 평가하, 신국 경 개방 및 전시회 개최 협력을 주내 용으로 함.
경제기술협력협 정(MOU)	일본	2012-08-16	2013-01-01	이라크 상업부(MoC)와 일본 Jetro 간 체결된 경제협력 관련 MOU
이라크-이란 무 역협정	이란	2014-10-22	2015-01-01	이라크 무역부(MoT)와 이란 무역산 업광산부간에 체결된 무역진흥관련 협정
이라크-요르단 자유무역협정	요르단	2017-12-01	2018-02-01	2017년 12월에는 양국은 요르단에 서 생산한 340여 개 품목에 대한 무 관세 적용을 합의한 바에 이라크-요 르단 국경에서 동 무관세 합의가 시 행되고 있지만 무역활성화 효과는 미 약한 상황임.

<자료원 : 주 이라크 대사관, 이라크 무역부(MoT)>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	--------	--------	----

이라크-EU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	EU	<p>이라크는 EU와 2012년 5월 11일 'EU-이라크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EU-Iraq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부터(잠정) 발효됐다. 해당 협정에 따르면 이라크 원산지 제품의 EU 진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EU산 물품에 대해서는 8% 이하의 관세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협정은 특혜적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전반적으로 WTO 규범에 준해 작성된 협약으로, 이라크의 성공적인 재건과 시장경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EU의 대이라크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졌다.</p>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한국	<p>기재부는 암만에서 한국과 이라크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2차 협상을 열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음. 투자소득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라크 국내세율 15% 보다 낮은 5%를 사용료 소득은 이라크 국내세율 10% 보다 낮은 5%를 적용하기로 합의함. 최종 발효는 국회 비준을 거쳐 이루어짐. 2022년 9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로 특별한 행사없이 문서 교환을 통해 동 협상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음.</p>	
이라크-중국 경제협력	중국	<p>2019년 9월 총리 방중 기간 중 8개 분야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강화 추진 중. 이후 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유-프로젝트 교환에 기반한 협정의 추진은 미루어지고 있으나 에너지, 인프라 등 각종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진출은 활발해 지고 있음. 다만 초기에 약속했던 이라크 내 학교 1,000개 건립 등의 프로젝트는 논의만 이루어지고 실제 완공으로 이어지는 못하고 있음</p>	원유 거래 등에 기반한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식 발효되지는 않음
이집트-이란-이라크 산업통합 협정	이집트 이란	<p>2021.11월 요르단 왕세자의 이집트 방문 기간 중 3국간 산업 통합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MOU 체결. 실제 협정 체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p>	
이중과세 방지협정	요르단,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카타르, 파키스탄, 루마니아	<p>2022.4월 재무부는 요르단,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카타르, 파키스탄, 루마니아 등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협상할 권한을 내각으로부터 부여받고 동 협상 진행 중. (2022년 9월 기준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음)</p>	

<자료원 : 주 이라크 대사관, 이라크 정부 공표 자료 등>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이라크의 대표적인 수입규제는 2010년 시행하기 시작한 이라크산 제품보호법(Iraqi Product Protection Law, 2010)에 근거를 두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세 제도이다. 4년 기간 동안 국내 생산품의 보호를 위해 기본관세에 추가로 100%까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호관세 제도 이외에 실질적으로 선적 전 검사를 통해 수입규제가 관리되고 있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선적 전 검사 담당기관인 COSQC(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진행된다. COSQC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 이라크로 수입되는 수입품 통관 시 품질 적합성 확인을 2020년 3월부터 Intertek Int. Limited UK,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Geo-Chem Middle East 등 3개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시키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4월 22일 수입금지 품목을 아래와 같이 지정했으며 2022년 9월 현재까지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다.

○ 수입금지 식품(HS코드)

- Salt(50100), Vermicelli & Pasta(190211), All kinds of Dates(80410), Iranian Apple(80810), All kinds of honey(40900), Beer(220300), All kinds of soft drinks(220210), Juice(200989), Energy Drinks(220210), Mineral Water(220110), Dairy Pasteurized & Drinking Yogurt(40310), Animal fats & Industrial and food(151610), Eggs(40721), Live Chicken(10511), Whole slaughtered chicken(20711), Date Syrup(170390), Frozen Marine Fish(30310), Hookah Tobacco(240311), All kinds of Chips(Potatoes & Corn)(190590), All kinds of Ice-cream(210500)

○ 수입금지 기타품목(HS코드)

- Electrical scales, mechanical number(842310), Optical cable, new generation(854470), Calcitic Lime(252100), Medical Cotton(300590), Military Service Boots(640391), Military Vest(610190), Military Helmet(650610), Beer(220300), All kinds of soft drinks(220210), Juice(200989), Energy Drinks(220210), Mineral Water(220110)

식품과 기타품목에 중복이 있어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적으로 자국산 농식품의 시장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시로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 진출기업이 식자재용으로 식품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다만 최근에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일부 품목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하고 밀수 또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수입된 해외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매년 통관 시 품질 및 규격검사 문제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적 전 수입검사제도 및 각종 인증제도가 점차 까다로워

지고 있다. 그러나 세관 당국의 역량 부족으로 수입검사제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2020년 5월 취임한 kadhimi 총리는 2년 내 전자정부 로드맵을 작성해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시도하고 있으나 세관분야에서 실제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라벨링

-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ISO 및 EU의 에너지 라벨링 시험규격과 라벨링 표시 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 대상품목: 가정용 에어컨(2017년 4월) 및 냉장고(2017년 9월) 등 26개 품목
- 인증 담당기관 및 도입 시기: 이라크 표준청(2017년 4월 1일)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수입통관 시 필수 서류로 4월 1일 이후 통관품목부터 적용

TBT

이라크 정부 당국에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선적 전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동 제도 강화과정에서 통관 현장 준비 부족과 통관 당국의 미숙한 역량으로 인해 우리 수출품의 원활한 통관이 지장을 받기도 한다.

이라크 통관 당국은 모든 수입 품목에 원산지증명서, 선적 전 검사서, 이라크 바이어의 수입허가서를 수출국 주재 이라크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통관 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통관절차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중국산 등 각지에서 생산된 불법 복제, 모조품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으나 품질규제나 인증, 검사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라크에서 유통되는 불법 복제 모조품은 전자제품에서부터 담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재와 석유난로 등 가정용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특히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이 중국산 짝퉁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의 행정력 미비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제도의 시행을 포함해 인증 획득을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적절한 절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품 자체 또는 기업의 인지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진행 절차가 변칙적이기도 하다. 다만 통관 시 BV 및 TUV에 대행권을 주어서 선적 전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시도하고 있어, 국제기준의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선적 전 검사 제도

이라크 기획부 산하 COSQC(Centr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표준, 규격, 품질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다. 수입제품의 통관 시 규격 및 품질 검사는 2011년 5월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제도를 그대로 준용해 2021년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을 지정해(Intertek Int. Limited UK,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Geo-Chem Middle East, Bureau Veritas 등 4개사) 수입품 통관 시 품질검사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시험소 역량 확대 등을 통해 내부 조직이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선적 전 검사 해당 품목은 장난감, 전자·전기제품, 자동차/이륜차 및 부품, 건설 기자재, 가공식품, 화장품 및 미용품, 가전제품, 부엌가구 및 기구, 화학제품, 섬유, 난방기기 등이다. 구체적인 품목은 선적 전 검사 대행기관인 Intertek Int. Limited UK,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Geo-Chem Middle East 의 한국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통관채널인 이라크 남부지역 바스라의 움카사르 항구에서 통관 시 소요되는 선적 전 검사 확인 비용과 시간은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초부터 이라크 통관 당국이 부패 척결을 위해 품질확인서를 수출국 주재 이라크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통관 시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움카사르항구 통관 시스템이 전산화되지 못해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적 전 검사제도는 Law no 54(1979)에 기반하여 수입품들의 규격과 해당 품질요건을 만족하는 지 제품적합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라크에 수입되는 제품은 COSQC에서 지정한 강제 규격에 부합하는지를 이라크 정부가 지정한 수출국가 소재 시험소에서 확인받

아야 한다. COSQC 및 시험 인증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o COSQC

- 이메일: cosqc@cosqc.gov.iq
- 전화: +964-1-776-1980
- 팩스: +964-1-776-1981
- 홈페이지: www.cosqc.gov.iq

o COSQC 지정 시험인증기관

- Intertek Int. Limited UK (<https://www.Intertek.com>, faris.diab@intertek.com)
-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https://www.hqts.com>, iraq@hqts-cociq.com)
- Geo-Chem Middle East (<http://www.geochem.ae>, baghdad@almadagp.com)
- Bureau Veritas (<https://verigates.bureauveritas.com/programmes/iraq>, iraq.conformity@bureauveritas.com) (2021년 10월 신규 지정)

선적전 검사를 완료한 뒤 주한 이라크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수출을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COO), 상업용 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nding),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2020년 하반기 부터 이중 COO과 Commercial Invoice는 주한 이라크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누락할 경우 서류별 75만 이라크 디나르(625달러)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우리 기업의 주의를 요한다.

COO 관련하여 2021년 이라크 세관을 통하여 확인한 바로는 별도의 평가 기준이 부재하여 (타국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핵심공정기준 등 적용) 제출 서류에만 기반하여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2년 현재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

자동차 관련 안전규정 강화를 통해 일부 저품질 자동차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였고, 규정이 제정되어도 시행은 별도로 결정되는 주재국의 특성상 관련 규정의 입법 및 시행은 단기간 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이라크는 2003년 연합국 임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당시 재건비 조달을 명목으로 정부조달 물품을 제외하고는 5%의 일괄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 및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 관세 인상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이라크 정부는 2010년 중 관세법을 마련해 5~35% 수준(주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80% 관세 부과)의 차등화된 관세율표를 마련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행시기가 연기돼 왔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2014년 이후 ISIL 반군사태가 발생해, 군비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인이 늘어난 반면, 국제적 저유가로 인해 석유 수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이 줄어들어, 이로 인한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로 인해 그동안 연기해 왔던 차등 관세법을 추진키로 했다. 2015년 수차례에 걸쳐 시행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못했던 관세법은 2016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돼, 현재 쿠르디스탄을 제외한 전 이라크 통관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8년에는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 간에 관세제도 통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라크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관세법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못했던 것은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비협조 때문이다.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경우, 이라크 관세법 시행에 협조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5% 일괄관세 체제를 유지해, 다수의 수입업자가 물류경로를 남부 바스라에서 쿠르디스탄으로 돌려버림에 따라 이라크 중앙정부의 관세율 부과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다. 이라크 중앙정부는 2015년 말에 쿠르디스탄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운송트럭에 대한 특별통관소를 바그다드 주위에 설치해, 관세차액을 징수하는 초강수 시책을 도입함으로써 수입업자들의 관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다.

2016년 11월 1일부로 세입 확대를 위해서 승용차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는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 총리실 행정명령(Prime Minister Council Order #295)을 통해 추가로 관세를 높이기도 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보다 간소화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The Council of Ministers No 393 of 2017), 전 수입품목이 4개군으로 나뉘고 최소 0.5%에서 30%까지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5%로 증가했던 승용차 관세가 다시 15%로 인하되었다. 2019년 부터 자동차 관세는 15%로 동일하나 연식, 원산지과 차종을 기준으로 세금부과 기준가격을 달리 지정하여 2019년산 4기통 차량의 세금부과 기준가격이 한국산은 10,500달러인 반면 중국산/터키산/이란산/아라비아산/인도산 차량은 10,000달러, 일본산/미국산/유럽산 자동차의 경우 12,000달러이다. 2019년산 4기통 SUV 차량의 경우 세금부과 기준가격은 한국산 13,500달러, 중국산, 이란산, 아라비아산, 인도산은 12,500달러, 일본산, 미국산, 유럽산은 16,000달러이다. 2022년에도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새로 도입된 관세와 관련 국가전략투자사업으로 지정된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현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면세제도를 잘 활용해 왔으나 2021년 부터 일부 프로젝트 관련 물품 도입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간의 혼란이 야기된 상황이다.

(2022년 9월 기준 최신자료)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이라크의 관세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는 재무부이고, 관세의 징수관리는 산하 관세청(General Commission of Custom Authority)이 맡고 있으며, 관세청장은 국장(Director General)급이다. 관세율 정보는 주무부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통과된 법안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구체적인 품목 관련 관세 문의는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한국에서 출발한 대부분의 화물은 UAE의 Jabal Ali 항을 거친 다음 움카사르(Um Qasr) 항을 통해 이라크로 들어온다. 이라크로 들어온 화물은 트럭 등을 통해 내륙으로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항구로는 Basra 남쪽의 Um Qasr 항, Khor Al-zubair 항, Abu Floos 항 등이 있으며, 지형상 북쪽, 동쪽, 서쪽 등은 이웃 국가들과 접해 있어 항구가 부재하다.
- 물동량 : Um Qasr 항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약 25만 TEU의 물동량이 처리되었으며 Khor Al-zubair 항의 경우 주로 벌크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향후 Al-Faw 항이 운영되면 이 지역 최대의 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바그다드 국제공항 :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으로 2020년 기준 이용객 928,876 명, 물동량 6,092 톤 이다
- 에르빌 국제공항 : 쿠르드자치구역에 위치 2020년 기준 이용객 506,263 명, 물동량 18,826 톤 이다
- 술레마니아 공항 : 2020년 기준 이용객 124,223 명, 물동량 10,486 톤 이다
- 기타 : 바스라 공항(198,048 명 이용), 나자프 공항(272,770 명 이용)

3) 유의사항

항공 운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통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소형 제품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해상 운송을 활용하고 있다. 대체로 UAE의 Jabal Ali 로 운송된 뒤 Um Qasr 항으로 다시 운송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4) 기타 참고사항

한-이라크의 운송비용은 최근 급상승하여 20 ft 컨테이너 기준으로 약 US\$ 5,000내외이며 실제 비용은 시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개요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 국가와 유사하다. 즉,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적합성 인증 등을 필요로 하며 세관원이 육안으로 물건을 검사한 후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이라크 내 세관 가운데 우리나라 화물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움카사르 항 세관의 경우, 투명하지 않은 세관 행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항만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수일 내에 통관되기도 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2018년부터는 통관서류의 진위여부를 수출국 이라크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 통관 유형별 절차

○ 통상적인 국제기준에 따라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2012년 10월 이후 민간수입의 경우 예외 없이 수입면허를 제출해야 한다. 물품 통관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CI(Commercial Invoice)
- P/L (Packing List)
- B/L (Bill of Lading)
- C/O (Certificate of Origin)
- 수입면허(Import License)
-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품목은 식품, 화학제품, 엔지니어링용품, 섬유제품, 건설재, 안전용품 등이며 전문검사기관들에서 수행한다.

그리고, 2020년 10월 부터 COR(Certificate of Registration)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상품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입업자의 의무로 국내기업이 직접 등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2022년 4월 부터 내부적 문제 및 식품 수입 원활화 등의 이유로 등록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 우편통관

국제 우편협약에 따라 배송자는 반드시 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제품에 대해 지정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 방치된 화물

방치 화물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고 화물 보관료만을 징수한다.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 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만 체재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이라크에서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사용될 건설 기자재를 실은 화물의 경우에도 세관의 억류 조치로 인해 화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는 해당 프로젝트 소관 부처에 공식 레터를 요청해 방치 화물에 대한 반입 또는 귀송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수입품 품질 확인은 농산품 및 부패성 물품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의 반출허가 신청 후에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라크 표준청(COSQC)에 의해 외주를 준 BV 및 TUV를 통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는 수입자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시험분석소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세관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모든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해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고 있다. 선적 전 검사대행사인 BV와 TUV는 이라크 표준품질청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라크 내각 통관 사무소에서 품질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수출 시 한국에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라크 무역부는 기존 선적 전 검사 대행사였던 BV, TUV와 계약이 2019년 12월 종료되었음에도 연장 여부가 2020년 2월 말까지 결정하지 못하다 3월부터 Intertek 등 3개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3개사가 선적 전 검사를 대행했으며 2021년 10월 Bureau Veritas가 추가되었다.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선적에 한 곳의 한국지사과 연락해 수출품목이 선적 전 검사대상 품목인지를 확인한 다음 수출을 진행해야 통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 Intertek Int. Limited UK (<https://www.intertek.com>)
- HQTS Helmsman & Quality & Technology Services (<https://www.hqts.com>)
- Geo-Chem Middle East (<http://www.geochem.ae/>)
- Bureau Veritas (verigates.bureauveritas.com/programmes/iraq)

주한 이라크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Certified Commercial Invoice
- Certified Certificate of Origin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Al-Masar Al-Iraqi Co. L.L.C for Shipping & General Transport

주소	Al Masar Camp, Hamdan Al Bardia, Basrah, Iraq
전화번호	+964 (0) 770 492 6113
이메일	almasar@iraqilogistic.com
홈페이지	http://www.iraqilogistic.com

- Sharaf Shipping Agency

주소	P.O. Box 576, Sharaf Shipping Agency, Dubai, UAE
전화번호	+971 4 352 0555
이메일	info@sharafshipping.com
홈페이지	http://www.sharafshipping.com

- Mateen Express & Logistics

주소	Karada, Baghdad, Iraq
전화번호	+964 771 001 2301
이메일	info@mateenexpress.com
홈페이지	http://www.mateenexpress.com

◦ IMX CO.,LTD.

주소	UMM QASR OFFICE, IRAQ
전화번호	+964 772 2518235
이메일	imxiraq@imxkorea.com
비고	한국 진출기업

◦ DIJLA Clearing & Forwarding L.L.C

주소	Al Safafeer Street, Textile Market(바그다드) Al-Qalaa, Sheikh Jooli street(에르빌)
전화번호	009647822209007(바그다드) 009647507277497(에르빌)
이메일	imxiraq@imxkorea.com
홈페이지	www.dijlashing.com

<자료원 : Iraq Yellow Pages, 무역관 자체조사>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이라크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인정, 2006년 투자법(Investment Law)을 제정,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ISIS 등 정치 및 사회 여건상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석유 등의 핵심자원 개발 위주로 외국인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석유는 이라크 국부의 핵심자원으로 사회인프라 재건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긴요한 재정원이 돼 왔다. 이라크 정부는 전력 등 사회핵심 기반시설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오일머니를 활용해왔고 불안한 정치상황에도 다수의 플랜트업체가 이라크에 진출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석유와 관련해서도 외국기업들의 투자 등을 고려한 석유법(Oil Law)이 의회에서 논의만 됐고 2022년 현재까지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역시 완전하고 안정적인 법적 체제를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

○ 투자유치기관

중앙정부에서 무역부(Ministry of Trade)가 투자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법에 의거 총리 직속기관으로 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2007년 11월 설립돼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자프주, 바빌주, 바스라주, 살라아딘주 등 지방정부도 주 투자위원회를 설립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의 투자기관은 아직 내부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위원회의 경우도 일반적 투자유치기관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고 각종 프로젝트에 허가를 내 주는 기관으로 지원 보다는 관리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북부 쿠르드 지방정부에는 2006년 8월 제정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가 구성돼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투자지원 주 조직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National Authority of Investment)로서 정부 직체체계 속에서는 총리 직속기관으로 배치돼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5년 임기, 내각 추천으로 국회 승인)이 관할하며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9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주로 국가 투자정책 기획, 투자규제 조치, 투자규제 감독, 연방정부의 전략적 투자프로젝트 담당하며 각 지역 또는 주 정부에서는 별도의 지역과 주의 투자부서 대표자가 임명된다.

- 지역 투자청(Territorial Authority): 지역 정부의 투자 승인과 투자 기획 담당
- 주 투자청(Governorate Authority): 주정부 내 투자 관련 부서

○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우대 정책

제2차 이라크 침공 종전 이후 연합국 임시 행정처는 CPA 명령 39호(2003년 9월 19일)에 의거, 종전의 투자 관련법 조항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투자 명령을 공포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2006년 제정되고 2010년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으며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도 있게 됐고,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도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를 설치할 수도 있고 과실 송금이나 그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인근 중동 국가보다 유리한 투자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 국가투자위험도

OECD 평가 최저 등급인 7등급을 2022년에도 유지하고 있다. (OECD는 1996년 이래 이라크의 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2022년 3월 발표기준(2022.05월 기준 최신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어 등급 미배정)

S&P, Moody's, Fitch는 아직 이라크에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투자법의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투자지원체제 준비 중으로 제도적 기반이 미정착돼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종파 분쟁, 테러 등 치안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인센티브

이라크 침공 종전 이후 연합국 임시 행정처는 CPA 명령 39호(2003년 9월 19일)에 의거, 종전의 투자 관련법 조항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투자 명령을 공포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2006년 제정되고 2010년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으며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도 있게 됐고,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도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를 설치할 수도 있고 과실 송금이나 그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인근 중동 국가 못지않은 투자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 해당 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사유

이라크 정부가 지원사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정식 사업 등록 절차를 거친 외국기업에 한해 각종 조세 특혜를 제공한다. 이라크에서의 인센티브 지급 유형은 건별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 규모 결정에 가장 평가 요소는 정부 추진 핵심사업 여부, 공익 증진성, 외자 지분 비율 등이다. 이라크에서 외자에 의한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신투자법 또는 외자 유치제도 등을 도입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목표 시기 내 경제 개발 목표 달성이다. 자국의 해외 금융능력 부족과 기술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력 및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해 추진 계획 달성률을 안정적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2020년11월 신규 프로젝트 관련 발주처에 관세 및 세금 납부 결정했는데 향후 프로젝트 수주기업은 발주처가 국가투자프로젝트로 지정되더라도 과세대상에 놓이게 될 경우 법인세, 수입기자재 통관 등에서 관세를 납부해야 할 우려가 있으며, 2022년 현재까지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우리 진출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 조세감면

외국투자기업에는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며, 합작법인일 경우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50% 초과 시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준다. 그러나 프로젝트 자산을 이라크 법에 반해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세금(관세 포함)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자산이 투자 승인 후 3년 내에 수입될 경우 해당 자산의 수입관세를 면제해주며, 투자 프로젝트의 확대를 위해 수입한 자산은 위원회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입할 경우 해당 관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사전에 승인받은 건에 한하여 투자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면제해준다.

○ 고용보조금

이라크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 보조금 지급 제도가 없다.

○ 국책 R&D 지원사업 선정 등

R&D 지원 정책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투자 인센티브 적용사례

- 한국 투자기업 사례: 한국기업은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이라크 내 석유·가스 개발을 목적으로 투자진출한 바 있다. 이 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17개사가 이라크에 지사를 운영 중이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한화건설의 경우 현장 인근에 Prefabricated Concrete 공장을 신설하면서 상기 투자인센티브 등을 받았다.

- 외국 투자기업 사례: 이라크 내 투자 주류국가는 인근 중동국가이고 일부 미국계 기업이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모두 인센티브 적용사

례와는 관련이 없거나 미미하다.

- (참조) 이라크 투자법 내 관련 조항 : 이라크 투자법 17조(국가별 투자법규. 서식에 업데이트)

제한 및 금지(업종)

소매 분야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굴 분야는 제정 중인 석유법으로 규율을 만들어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및 유통사업의 경우도 2017년 커머셜에이전시법을 개정해 이라크인이 100% 소유한 법인에 의해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 투자제한 분야 관련 투자법 내용 (이라크 투자법 29조)

Article 29

All areas of investments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law except:

First: Investment in Oil and Gas extraction and production.

Second: Investment in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sectors.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998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청법(Free Zone Authority Law)에 따라 특혜를 부여하는 자유무역지역 4개 소를 운영하고 있고 1개 소가 준비 중이다. 입주기업은 모든 이득에 대한 조세와 수수료를 면제받고 비이라크 근로자의 소득세도 100% 면제, 이라크 근로자의 소득세는 50% 면제하고 있다. 또한 비 내수용 수출입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조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이스라엘 보이콧(Arab Boycott of Israel)'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Khor Al-Zubair Free Zone

- 이라크 남부 최대 도시인 바스라 인근 45km에 위치
- 1 km² 규모로 Al-Zubair항의 항만시설 이용, 걸프만의 물류 중심지로 오일 및 가스 관련 기업들에게 물류서비스까지 제공
- 인근에 석유 및 가스 산업 특화 경제자유구역 건립도 추진 중

- Ninevah Free Zone

- 이라크 북부지역 모술 북쪽 20km에 위치
- 4.9km² 규모로 터키, 시리아, 요르단과 남부의 바스라항을 도로와 철도로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

○ Al-Qa'im Free Zone

- 이라크 서북부 시리아와 국경지역 도시로 안바르주에 위치
- 터키와 육로로 연결되며 바스라주까지도 고속도로로 연결

○ 바그다드 Free Zone

- 자동차 거래에 특화된 지역으로 2022년 현재 추진 중

바스라 인근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ISIS 사태 여파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이란과의 논의를 통해 쿠르드 자치구역 내 Baneh, Maiwan 지역과 Kermanshah州 Qasr-e Shirin 지역 등에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산업단지

○ Bub Al-sham

규모	15제곱킬로미터
위치	바그다드 북동방향 25Km
임차료	s/m 당 100~1,000달러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투자위원회(NIC) - 연락처: 0780 812 0980 - 이메일: info@investpromo.gov.iq info@nici.gov.iq - 홈페이지: http://investpromo.gov.iq/ http://www.nici.gov.iq/
비고	건축자재, Mechanical equipment, Feeding, adhesives, Plastics products 관련 품목 취재업체 입지로 적합

○ Basra 산업단지

규모	200 에이커
위치	Basra주 Khor Al Zubair
임차료	개발 계획 수립 중

관할기관 및 연락처	Basrah Investment Commission (BIC) (+964) 7713111146 https://investbasrah.com/ar/ info@investbasrah.com
비고	향후 철강생산설비를 갖추려고 계획 중

○ Thiqar 산업단지

규모	2000 에이커
위치	디카르 주 Ur
임차료	건립 중(2022년 5월 현재)
관할기관 및 연락처	Thiqar Investment commission https://thiqarinvest.gov.iq/ 009647801952345 info@thiqarinvest.gov.iq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주요 지역별 여건

○ 바그다드

면적: 204km²

인구: 940만 명

주요 산업: 종교관광, 서비스(공항, 물류창고 등), 일부 제조업(의류, 화학, 식품 등), 부동산 개발(복합주택단지 등)

비고 : 이라크의 수도로 하나의 주로 취급을 한다. 치안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서비스 및 부동산개발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바스라

면적: 19,070km²

인구: 290만 명

주요 산업: 석유산업(15개 이상의 유정을 있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도 많은 상태로 이라크 전체 확인 매장량의 약 59% 차지)

일부 정제 산업 및 철강 산업, 바다를 접하는 면적이 좁은 이라크가 바다로 통하는 출입구로 주요 항만이 발달해 있음.

비고 : Umm Qasr 항은 쿠웨이트와의 국경 근처에 이라크 최대의 항구로 1930년 대에 개발된 이라크 최대의 항만

이외 Khor Al Zubair, Al Maqal, Al Flous Port 항 들이 위치해 있다.

○ 에르빌(Erbil)

면적: 115km²

인구: 150만 명

주요 산업: 석유산업, 농업, 관광업

비고 : 쿠르드 차치지역의 수도로 타 이라크 지역에 비해 치안이 매우 안정적이다. 또한 Erbil Citadel 등 유적이 위치해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5032.4	-4885.1	-3075.6	-2895.5	-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77.8	188.4	194.2	148.5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1	0	100	7	7,455
2020	2	0	10	0	0
2021	2	0	101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0	0	0	7	7,45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0	10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건설업	2	0	1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0	1	0	0
건설업	1	0	10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LS 일렉트릭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사
업종	건설, 기자재 공급
취급분야	변전소 프로젝트
모기업명	LS 일렉트릭

○ STX 마린서비스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사
업종	건설 및 플랜트 정비서비스
취급분야	발전소 프로젝트
모기업명	STX 마린서비스

○ 현대건설

진출연도	1978
진출형태	지사
업종	건설, 플랜트, 토목
취급분야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모기업명	현대건설

○ 대우건설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지사

업종	건설, 플랜트
취급분야	항만 인프라 프로젝트
모기업명	대우건설

◦ 세아 STX 엔테크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사
업종	건설, 플랜트
취급분야	발전 및 에너지 플랜트 프로젝트
모기업명	세아 STX 엔테크

◦ HDGSK JV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정유 설비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국내기업간의 JV
모기업명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SK 건설 등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현지 법인은 비즈니스 및 시장조사를 주목적으로 현지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 기업이 이라크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하는 것이다.

최소자본금은 1백만 이라크 디나르(IQD)이며 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2~12개월이다. 외국인인 이라크 무역부에 해외 사무소 설립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한다. 구비 서류를 첨부해 회사 등록처(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해야 하며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진행절차: 신청서 제출 검토 → 신청서 오류 발견 시 신청업체에 반송 → 신청서 오류가 없을 시 모든 구비서류 접수를 신청업체에 통보 → 접수와 동시에 등록 데이터 입력 → 임시 고유등록번호 배부 → 최종 승인 및 등록 완료

법인은 한국의 회사가 이라크 내 영업활동을 위해 이라크에 등록하고 회사법 역시 이라크 회사법에 따라 적용되어 영업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법인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며 영업활동, 회계보고, 소송 및 채무의 법적 책임은 해외법인에 있다. 또한, 법인세 15%를 내야 한다.

지사

지사의 현지 설립 절차는 현지법인 설립 및 등록과 동일하고, 다음과 같은 문서가 추가로 제출돼야 한다. 아래 명시된 문서 항목은 통상적인 요구사항이고 사업 내용 및 주무 부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설립 신청을 위해 필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한국에서 발급된 모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지사 설립에 대한 모기업의 공증서
- 신청서는 모기업의 레터헤드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 작성돼야 한다.
- 지사 설립 동의서
- 지사 설립에 관한 이라크 절차 준수 서약서
- 지사 설립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인원의 이라크 상주 서약서

최소자본금은 1백만 이라크 디나르(IQD)이며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2~12개월이다. 외국인인 이라크 무역부에 해외 사무소 설립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해 회사 등록처(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해야 하며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진행절차: 신청서 제출 검토 → 신청서 오류 발견 시 신청업체에 반송 → 신청서 오류가 없을 시 모든 구비서류 접수를 신청업체에 통보 → 접수와 동시에 등록 데이터 입력 → 임시 고유등록번호 배부 → 최종 승인 및 등록 완료

해외 지사는 한국의 회사가 이라크 내 영업활동을 위해 이라크에 등록하지만, 회사법은 한국 회사법에 따라 적용되어 영업하게 되는 것이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단순한 연락업무, 정부 수집 등과 같은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며 한국 본사에 종속된다.

최소자본금은 1백만 이라크 디나르(IQD)이며 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2~12개월이다. 외국인인 이라크 무역부에 해외 사무소 설립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해 회사 등록처(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해야 하며, 설립과 관련된 진행절차는 다음

과 같다.

○ 진행절차: 신청서 제출 검토 → 신청서 오류 발견 시 신청업체에 반송 → 신청서 오류가 없을 시 모든 구비서류 접수를 신청업체에 통보 → 접수와 동시에 등록 데이터 입력 → 임시 고유등록번호 배부 → 최종 승인 및 등록 완료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투자위험도 이라크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특히 자국통화에 대한 신뢰가 낮아 위험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OECD의 국가위험도 지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7 등급으로 최하위권을 이다. EIU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지출수준에 따른 위험, 비즈니스 친화적 행정, 금융권의 유동성 위험 등에서 높은 수준의 위험을 보유한 국가이다.</p> <p>2) 투자진출 애로사항 ○ 정치, 치안 등의 문제로 인해 해외 기업의 직접 투자는 매우 드문 편이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투자 진출 시 고려해야 사항이 많으나 무엇보다 체류 직원의 안전 문제로, 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 기업은 많은 직원을 보내기 보다 핵심 인력만 파견하고 있으며, 건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두바이, 요르단 등에 본부를 두고 필요 시 출장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외화의 유입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만성적인 외환 부족으로 인해 투입 자금의 반출에 애로가 크며, 때로는 운영자금의 인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현지 기업들도 해외 기업과의 거래 시 UAE 등 제 3국의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협정 미체결로 과세 부담이 있고, 세금 정책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해외기업들의 애로가 되고 있다.</p> <p>3) 분쟁해결 별도의 중재기관이 없어 원칙적으로 바그다드에 있는 법원에서 해결을 해야 하나 고위 관료, 정치권 유력 인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비자, 노동, 세금 등의 문제까지 계약서 내에 포함시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회사법인 법률 21/1997(2006.11, 2019.6 개정)에 따르면 회사법상 다음과 같은 형태의 회사를 다루고 있다.

- General Partnership
- Limited Partnership
- Limited Liability Company
- Limited Partnership in Shares
- Private Shareholding Company
- Public Shareholding Company
- Holding company (2019.6 회사법 개정 시 도입)

주식회사는 법인격, 주주의 유한책임, 지분의 자유 양도성, 이사회로의 경영권 위임, 주주에 의한 소유 등을 특징으로 한다.

5인 이상의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구성된 자본은 다시 주주에게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채무에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으로 유한 책임을 진다. 최소 자본금이 1백만 이라크 디나르이며 이 경우 한 주의 가액은 1디나르이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주식회사의 경직된 지배구조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로 되어 있고,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로 석유가스 분야를 제외하고 회사설립에 제한이 없다. 25명 이내 출자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같은 총회(General Assembly)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개인사업자

Individual Enterprise로 1개의 주식을 소유한 자연인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전재산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Al Hadeel Al Hasan LLC

전화번호	+964-780-779-9779
주소	Mansour area, Dis. 609, St.2, H.8,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s://hhp-law.com/our-offices/
이메일	baghdad@hhp-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법무법인

◦ Nesoor Legal Consulting

전화번호	+964-770-355-4400
주소	Al-Ameen Building, Arasat Alhindiya St.,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nesoor.net/?lang=en
이메일	info@nesoor.ne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법무법인

◦ Sulaiman & Co

전화번호	+964-790-136-9304
주소	Al Karrada 901 Street 23 House 10,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www.sulaimanaudit.com/

이메일	saad@sulaimanaudit.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회계법인

○ Ernst & Young Iraq

전화번호	+964-1-543-0357
주소	Block 609, Street 3, Villa 23, Al-Ameerat Street, Al-Mansour,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s://www.ey.com/en_gl/locations/iraq
이메일	Baghdad.iraq@iq.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회계법인

○ Saly & Associates

전화번호	+964-780-144-5441
주소	Fakhry 2 Building, 6th Floor, Office No.17,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s://saltandassociates.com/
이메일	info@saltandassociate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회사법 관련 전문 법무법인

○ Juboori & Co.

전화번호	+964-790-185-7
주소	Al-Hartheya Q. , Kindy street, close from Baghdad International fair , P.O. Box 55024 , Baghdad - Iraq
홈페이지	www.aljuboori.net/index.html
이메일	acc.firm@aljuboori.n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회계 및 전문 세무 서비스 제공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2003년 10월 새로운 이라크 디나르 화폐를 발행해 대비 환율을 US\$ 1=2,980이라크 디나르로 정했으며, 이후 이라크 디나르화는 지속 절상돼왔고, 2009년부터 이라크 중앙은행이 US\$ 1=1,132 이라크 디나르, 2014년은 US\$ 1=1,165이라크 디나르라는 공식환율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달러화에 자국 통화가치를 고정한 고정환율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2018년 평균환율은 US\$ 1=1,182이라크 디나르였으며 2020년 10월 시장환율은 US\$ 1=1,250 이라크 디나르로 상승했는데 2020년 12월 21일 중앙은행(CBI)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공식 환율을 전격적으로 US\$ 1=1,450으로 조정하였다. 최근에는 환율 조정(평가절하)로 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이라크는 이중 환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는 중앙은행에서 발표하고 정부은행 등에서 적용하는 기준환율이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경매를 통해 달러를 시중은행에 배정하여 시중은행들이 시장에서 달러를 팔 때 적용하는 시장환율이다. 두 환율이 다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표되고 있는 공식환율이다. 시장환율은 2003년 8월 말 이라크 중앙은행이 업무를 재개한 이래 시중은행이 참가하는 외화 경매를 통해 정하고 있다.

예시) 2022년 5월 1일 기준 : (공식환율) US\$1=1,450 (바그다드 거래소 환율) US\$1=1,477

중앙은행의 경우, 물가 억제책의 일환으로 이라크 디나르화의 평가 절상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2014년 ISIS 반군 사태 이후 이라크 경제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제적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라크 디나르화는 달러화 대비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화 등 외환거래는 자유화되어 있고 달러화 환전도 시중 환전소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미 달러가 이라크 화폐 못지않게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매장에서 달러로 지급 가능하며 차량 등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달러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외환 소지 및 거래, 송금, 입금이 자유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외환 부족으로 인해 달러의 인출에 제한이 많이 가해지는 편이며, 간혹 은행의 달러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과도하게 부과되는 송금 수수료 등은 현금을 선호하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외환 규제

중앙은행 산하에 Foreign Exchange Control 부서가 존재하고 일부 외환 관련 규제가 존재하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라크 전 정부 경제전문가는 이 부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은행을 통한 송금에 제한이 많으며 실제로 송금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물품 대금 지급 등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간 송금은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1만 달러 이상 또는 10만 이라크 디나르 이상을 휴대하고 출국 및 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오랜기간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여 일상적인 외환 부족을 겪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해외로 유출된 자금의 이라크 내 복귀를 위해 특별법 재정 등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속되는 외환 부족으로 인해 진출기업들이 자신의 계좌에서 달러를 출금하는 데에도 간혹 애로를 겪기도 하며, 이로 인해 개인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금고에 달러화를 보관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1,460이라크 디나르(IQD)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8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0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5
비고	<p>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급여에 대한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비전문분야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낮은 월급을 대체할 추가 성과급에 대한 희망도가 높은 편이지만 실제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는 50% 정도에 불과하다. 외국기업 사무직의 경우, 현지에서의 통역 또는 신변 안전 확보차원에서 고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급여 책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쿠르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화된 곳에서는 안전에 대한 특별 수당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현지 회사에 취업한 대졸 평균 초임으로 추산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5달러 수준이다.</p> <p>이라크 급여생활자들의 평균 급여는 월 2,500,000 IQD(약 1,414 달러)이며 지역마다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평균 급여는 아래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그다드 : 2,960,000 IQD(1,648 달러) - 바스라 : 2,310,000 IQD(1,593 달러) - 나자프 : 2,230,000 IQD(1,537 달러) - 키르쿠크 : 2,050,000 IQD(1,393 달러) <p>보통 외국기업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타 직장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영어 등 외국어를 구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어 제한된 풀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무직의 경우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00~2,000 달러, 비서직의 경우 1,000~1,500 달러 상당을 지불하며 경력에 따라 3,000 달러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라크 근로자는 다른 중동국가 근로자에 비해 직무에 대한 충성도와 열의는 높은 편이며 업무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해외기업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안정된 달러화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혜택이 있어 근무열의는 높은 편이다. 노동법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노동계약서는 아랍어로 작성해야 하고 임금은 이라크 화폐로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외국기업은 드물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 석유회사 및 건설회사에 자국인 채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채용직원에 대한 사회보장세납부 의무 준수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이라크 정부의 노동법 적용을 위한 조치들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p> <p>국내기업의 경우 급여를 달러로 지급하기도 하고 건설 현장 등에서의 현지인 채용은 이라크 정부, 지역사회 등의 요구에 대응하여 일부 채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p>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이라크는 노동법 37/2015 (2015년 제정)에 따라 근로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쿠르디스탄지방정부(KRG) 지역은 71/1987 (1987년 제정)에 근거해 근로 관계를 다루고 있는 쿠르디스탄 노동법이 해고에 좀 더 자유롭다. 이라크 중앙정부에 따르면 고용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나 쿠르디스탄지방정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자는 노동자와 반드시 합의 하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주5일(일~목), 1일 8시간 근무하며 초과근무는 1일 최대 4시간 이내이다.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은 회사 자율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최대 200%까지 지급될 수 있다. 민간기업은 8:00~16:00까지 근무하며 일반 상점은 10:00~17:00까지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는 치안이 불안해 상가의 개점시간과 회사의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일부 회사의 경우 신변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기도 한다. 또한 무더운 날씨로 인해 건설현장의 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치안 불안에 따른 교통 통제 등의 영향으로 근무 시간을 조절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코로나가 확산되던 2020~2021년 기간 중에는 재택근무를 하는 곳도 많았고, 주 2~3회만 출근 하는 등의 경우도 있었으나 2022년 현재는 대부분 정상화되었다. 또한 라마단 등 이슬람 문화의 영향에 따라 특정한 시기에는 단축 근무를 하는 등 변동이 있어 노무 관리에 애로가 있다.

휴가

유급 휴가는 최대 연간 30일이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여성 근로자에게는 최대 14주간의 출산휴가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해고

노동법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대체로 회사 사정 때문에 내규에 따라 해고 처리된다. 해고 노동자의 경우도 법적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사전 조율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퇴직금

노동법에는 회사가 퇴직금(end of service gratuity)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1년 당 2주분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계산방법은 월 급여*12/365*14이다.

다만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대체로 퇴직금을 납부하려고 하지 않고, 실제 지급되는 사례도 거의 없다. 오히려 외국기업의 경우 노동법 준용을 강요받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사회보장제 개황) 이라크에는 The Pension and Social Security Law for Workers(고용연금 및 사회보장법)에 의해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제도를 다루고 있다. 사회보험 운영기구로 The Workers' Retirement and Social Pension Organization(사회보험기구)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의 경우 급여의 5%를 매월 공제하여 사회보장펀드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에 의해 고용주에게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석유가스산업과 일반산업으로 구분하여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 과세대상 급여 : 급여에서 일반적 수당을 공제한 금액 (일반적으로 총 급여의 30% 내에서 공제)
- 과세대상 직원 : 이라크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외국인도 포함)
- 세율
 - 일반산업 분야는 고용주가 급여의 12%를 부담하여야 하며 1. 건강보험(Health Assurance) 1% 2. 산재보험(Work Injuries Assurance)3% 3. 국민연금(Pension Assurance) 8% 로 구성된다.
 - 석유가스산업 분야는 급여의 25%를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1. 건강보험(Health Assurance) 3% 2. 산재보험(Work Injuries Assurance)3 % 3.국민연금(Pension Assurance) 15% 4. 서비스보험(Service Assurance) 4% 로 구성된다.

○ 실제 적용 :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주관 부서(프로젝트의 관리 부서) 및 지역 등에 따라 일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납부 비용을 인정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로 주관 부서와 확인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 별도로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없다.

산재보험

상기 기술한 The Pension and Social Security Law for Workers(고용인연금 및 사회보장법)에 따라 일반기업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12%의 부담금 중 산재보험이 3%이며, 석유가스분야 기업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25%의 부담금 중 산재보험이 3%이다.

국민연금

일반기업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12%의 부담금 중 국민연금이 8%이며, 석유가스분야 기업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25%의 부담금 중 국민연금이 15%이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일반기업과 석유·가스 개발 관련 기업에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 일반기업: 15%
- 석유·가스 개발 관련 기업: 35%
- 기타사항
 - 감가상각 : 정액법, 정률법 또는 과세 당국에서 인정하는 방법
 - 손실공제(Relief for losses) : 당기 순손실 발생 시 차후 5개년도에 걸쳐 처리가 가능. 단 같은 종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과만 상쇄할 수 있으며, 연도별 당기 순이익의 50% 내에서만 상쇄가 가능하다.

개인소득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 본인공제 : 250만 이라크 디나르
- 배우자 공제 : 450만 이라크 디나르:
- 자녀 공제 : 20만 이라크 디나르
- 고령자 공제 : 320만 이라크 디나르
- 기본공제 : 급여의 30%

소득세율은 소득액에 따라 차이가 나며 3~15%이다.

- 50만 이라크 디나르 이하: 3%
- 50만 초과~100만 이라크 디나르: 5%
- 100만 초과~200만 이라크 디나르: 10%
- 200만 이라크 디나르 초과:15%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양국간 이중과세 면제 협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발주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증여세 등은 없다.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는 없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는 없다.

부동산세(Property Tax)

부동산 수익의 10.8%를 세금으로 부동산 소유주 또는 5년 이상의 장기 임차인에게 부과한다. 부동산 수익을 평가하기에 앞서 부동산 유지보수 비용으로 10%를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동산세 부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토지의 임대수익에 관해서도 2%의 세금을 부과한다.

판매세(Sales Tax)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인 Sales Tax를 부과하고 있다.

- 일반 소비물품(배급품 제외) : 5% (2018~)
- 고급호텔 및 식당: 10%
- 선불 전화카드, 휴대폰 후불 영수증, 인터넷 사용료: 20%
- 주류 : 200% (2017년까지는 300% 였음)
- 담배 : 100%
- 수입휘발유 : 15%
- 항공권 : (국제선) 25,000이라크디나르(IQD), (국내선) 10,000이라크디나르(IQD)

인지대(Stamp Duty)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계약금액의 0.1%~3%를 인지대로 부과한다.

그러나 민간의 계약에서는 타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인지대 없이 진행되고 정부와의 계약에서도 경우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석유부의 경우 국제석유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분 인지대가 면제되고 있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이라크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정 중 하나인 파리 협약의 가입국이므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을 우선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다. 이라크는 1976년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정식 회원국이 아니므로 PCT를 통한 이라크 국내단계 진입은 불가하다.

기존 1970년 특허 및 디자인법 65호(The Patent and Industrial Designs Laws and Regulations No.65)는 2004년 4월 26일 유엔 안보리(UNSCR) 1483에 의거 이라크의 행정 및 재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연합임시행정처(CPA)에 의해 특허, 디자인, 미공개정보, 집적회로 및 식물품종 보호법(Patent, Industrial Design, Undisclosed Information, Integrated Circuits and Plant Variety Law)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라크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특허 발명의 소유자가 등록일 기준 3년 이내에 규정된 실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2년 연속 발명의 실시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강제실시권이 발동되게 된다. 특이한 점은 이라크의 디자인 등록 및 보호 절차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의 두 가지 미니어처 모델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상표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위치해 있는 산업광물부 상표등록담당부에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에 쿠르드 지역의 무역산업부는 쿠르드 지역을 포괄하는 자체 등록시스템을 개시하였다. 따라서 브랜드 소유주는 이라크 내의 상표 등록 및 보호를 위해서는 바그다드 및 쿠르드 지역의 해당 관청에 동시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바그다드 상표등록담당부에서 전국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쿠르드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는 브랜드 소유자는 쿠르드에서도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 바그다드와 비교하였을 때 쿠르드에서 등록절차가 비교적 빠르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역산업부 등에 연락을 취하여도 적절한 조치는 쉽게 되지 않고 실제 수사는 내무부 산하 경제범죄 단속국(Directorate of combating economic crime)에서 맡기도 한다.

이라크는 법적 측면에서는 여타 국가에 비해 손색이 없는 수준이지만 질서가 불안정한 현재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유효한 집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KOTRA, 대사관 등의 지원을 통해 이라크 정부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련 부서 : Trademark Department, Legal Directorate, Ministry of Industry and Minerals
 - Baghdad, Iraq, Al Nidhal St.
 - trademark@industry.gov.iq
 - www.industry.gov.iq

- 기타 접촉 필요 부서 : 경찰청, Department of Combating Economic Crime, Ministry of Interior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 관련 법률: 이라크 회사 규정 및 법률(21 of 1997)159-179항(1997년, 2004년 개정)

투자법인의 철수 및 청산을 위해서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각 주무 부처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외국법인의 경우 내국인보다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서 작성에 관련부처 및 은행으로부터의 공증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신청 후에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 특성상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각 부처로부터 촉구 레터를 받아 발급하면, 절차가 빨라지기도 한다.

-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지사의 경우 본사의 결정내용 포함) 대리인(변호인)을 선임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등기소(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CRO)는 관련 부처로부터 청산과 관련된 내용을 받는다. 해당 기관은 아래와 같다.

- 소득세부처(국세청;GCT)

- 통관부처(관세청;GCC)

- 사회보장부처

- 이라크 중앙은행(CBI)

- 이라크 변호사 협회

- Al-Rasheed 은행(국책은행)

- Al-Rafidain 은행(국책은행)

- (지사의 경우에 한해) 계약이 체결된 담당 부처

- 이라크 보험사

이후 청산절차가 시작되고 청산 전후 은행명세서 등을 요구한다. 이 절차는 국세청 (General Commission for Taxes)으로부터의 추가적 요구나 적절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변호사 협회의 주장 등이 없을 경우 보통 45~60일 정도가 걸린다. 청산절차가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책임과 권리를 발생시켜서는 안되나 일반적 영업활동은 인정된다.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인은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비용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세금, 법률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2,5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가 일반적이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국내 산업발달이 미약하고 치안 문제로 외국기업의 투자도 석유가스 등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실업률이 높아 전반적인 구매력은 낮은 수준이다. 다만 연이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만 65세 이상 인구는 1,385 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3.44%에 불과하고 29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5.85%를 차지하고 있어 연이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인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21년 기준_2022년 확인 가능한 최신 수치)

- 0~9세: 10,610 천명
- 10~19세: 8,711 천명
- 20~29세: 7,166 천명
- 30~39세: 5,404 천명
- 40~49세: 3,937 천명
- 50~59세: 2,341 천명
- 60세 이상: 2,054 천명

이라크 정부 및 IMF에서는 2022년 인구가 4,200 만명을 넘어서고 한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1년 경제성장률이 +로 전환된 후 향후 4~5년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구매력(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2021년 1인당 GDP(명목)는 10,700 미 달러, 2022년에는 12,140 미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는 앞으로도 중동에서 중요한 소비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https://population.un.org/wpp>, 이라크 통계청>

소비 성향

이라크는 1인당 국민소득(GDP)은 2021년 기준으로 약 5,000달러 수준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라크를 상위 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소득수준은 크게 낮은 편이나 석유자원 등으로 인한 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서 같은 국가 내 시장의 편차가 매우 극심하다.

* 자료 : (IMF) 5,088 달러, (이라크 중앙은행)730만 디나르

이로 인해 대체로 중국, 터키산 저가 제품의 소비가 많은 편이지만 동시에 고급제품에 대한 수요도 존재하는 이중적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다. 거리를 보면 가령 20년이 넘는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한편, 유럽산 고급 SUV나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이라크는 1970년대까지 중동의 산유국 중에서도 높은 소득수준을 자랑하고 있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고급제품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남아있다. 대부분의 서민은 어쩔 수 없이 터키 및 중국산 저가 제품을 구입하고 있지만,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월 1,000달러 미만의 소득자들도 최신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다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소비자의 취향을 겨냥한 유명 브랜드 재고품이나 모조품도 대거 유통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력이 미흡해 모조품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전쟁 이후 소비자들의 급격한 구매력 감소로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나 품질 수준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대체로 품질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 결과 저가 중국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만족 지수는 그리 높지 않으며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생활용품의 경우 대체로 저가 제품은 가격을 더 따지나 고가품의 경우 품질이 더 중요한 구매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전제품은 500달러를 기준으로 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제품은 5,000달러를 기준으로 가격과 품질의 선호도가 바뀐다. 이상과 같이 이라크인의 일반적인 소비성향은 '유명 브랜드 저가 모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 중인 가전제품은 대체로 '브랜드는 고급'이지만 제품은 선진국에서 한물간 구형 모델이거나 원가 절감을 위해 제3국에서 조립한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이라크 정부가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이란, 터키 등으로부터의 상품 공급이 감소하고 또한 연말 디나르화 평가절하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2021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GDP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점차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인당 GDP가 7,000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IMF) 소비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거의 없는 등 금융 서비스가 발달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일부 온라인 마켓, O2O 서비스 등을 활용하기 위해 카드가 사용되고, 인근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가 도입 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향후 소비 수요 및 방식이 다양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상품 이미지

중국, 터키 등의 저가 제품을 주로 소비하는 현지에서 한국산 제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자동차,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지 판매점 등을 방문하면 그 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입물량 면에서는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 터키 제품에 크게 밀리지만 고급제품,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는 매우 확고한 상태이다.

전자제품의 경우 대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선진화 이미지 정착이 성공하면서 전자제품, 자동차에서 소비재로까지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에는 Mini Good, Ximi Vogue 등 중국 모조품 유통기업이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이용해, made in China, designed by Korea와 같은 짝퉁 한국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한국 제품 이미지 추락이 우려되었는데 2020년 코로나 확산에 따라 대형 쇼핑몰의 영업을 금지하는 등 소득이 감소하고 수요 역시 감소함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화장품, 전자제품 등의 소비재부터 윤활유 같은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활용한 모조제품이 유통되고 동아시아 국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현지인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짝퉁 한류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실업과 평가 절하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수출도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유가 회복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회복되고 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도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연예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각종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현지 인플루언서의 별도 브랜드 맞춤형 제품 제작 등으로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기 등 국내기업의 기술적 우위가 있는 제품의 경우 현지 파트너 협력을 통한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고유가로 소비가 활성화 되면서 미용기술 제품, 안전관련 제품 등으로 한국 제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 중동지역 전반적으로 대면접촉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체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며,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비즈니스에 유리하다.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의견 조율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정보는 대면 미팅을 통해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사이버 미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졌으나 직접 접촉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라크는 우리 기업의 입국이 제한된 지역이므로 계약 체결 등 중요한 안건으로 대면 미팅을 하여야 할 경우 두바이, 아만 등지에서 미팅을 진행하거나 한국으로 초청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 프로젝트 건으로 한국 외교부의 승인을 받고 이라크를 방문해 공무원을 면담할 시에는 반드시 해당 부처나 국영기업의 의전(protocol) 파트를 접촉해 사전 약속을 해야 한다.

○ 우리와 상관습이 달라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된다. 단순히 프로세스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긍정도 부정도 아닌 듯한 태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였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 '인살라'(신의 뜻대로)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거나 약속을 잡는데도 시일을 오래 끄는 경우도 있다. '인살라'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알라의 뜻에 맡기겠다는 좋은 의미이나, 간혹 신의 가호로 원하는 대로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변질되거나, 약속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현지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 후 헤어지면서 습관적으로 '인살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니 실제 진행 여부는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 시간 관념이 우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전처럼 시간을 심하게 어기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바그다드 등 주요 도시의 경우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예고 없이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미팅 시간은 여유롭게 잡는 것이 좋다 또한, 라마단 등 종교 기념일(기간) 등에는 비즈니스 진행에 애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말리쉬'는 원래는 괜찮다(No Problem) 혹은 이해해달라는 의미인데, 실제 주문 의사를 밝힌 후 몇 달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아 전화하면 바이어들이 곧잘 '말리쉬'라고 말한다. 이것은 노력했으나 되지 않았으니 이해해달라'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와스따'는 중국의 '판시'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전히 부족사회의 성향이 남아 있는 이라크는 공적인 사업에서도 친족 등 인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원유 프로젝트가 몰려있는 남부지역의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하다. 현재는 '와스따'가 친족 관계를 넘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지역 출신 등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성이 강하다. 중동 바이어가 하는 말에 이렇듯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정작 자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요하게 접근하며 한 번 거래를 한 경우에는 쉽게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최근까지도 무역사기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2020년에는 두바이에 본사를 둔 Hassani Group 명의로 다수의 우리 기업에 구매의향서를 메일로 발송했는데 무역관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이메일에서 소개한 기업의 주소, 전화 등은 모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IPCO(Iraq Projects Contracting Office) 라는 기관 명의로 거래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사기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라크 기업에게 이메일을 받은 경우 무역관을 통해 최소한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구매의사의 진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 대금결제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T/T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선금을 지급하고 선적 또는 도착 시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대형 거래의 경우는 제3국 은행 또는 국영은행을 통해 L/C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흔하지는 않다. 국내기업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송금 전 등록절차가 있다며 소액을 특정구좌에 입금하라는 사기사례가 많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 (남성) 비즈니스를 하는 남성의 경우 대체로 서구식 정장, 비즈니스 캐주얼 등을 입는다. 간혹 이슬람 전통복장(디쉬다쉬, 터번, 칸두라)을 입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대체로 특정 행사 등의 경우에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나이가 많은 남성의 경우 전통 복장으로 미팅에 나오기도 한다.
- (여성) 사우디, 이란 등과 달리 여성의 복장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다만 현재도 수니파 여성들은 히잡(Hijab)으로 머리 혹은 머리카락만을 가리고 다니고, 시아파 여성들은 검은색 차도르(Chaddor)를 두르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2) 인사

이라크인 끼리는 다른 중동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앗살라무 알리쿰'이라고 인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악수도 흔하게 한다. 포옹은 보통 가까운 집안 식구나 친척, 친구 간에 하는 인사로 먼저 머리를 오른쪽부터 시작해 왼쪽으로 서로 어긋나게 하는 인사법이다. 이 포옹을 하고서 상대의 어깨에 얼굴을 대거나 서로 뺨을 맞추는 인사를 계속하기도 한다. 뺨을 맞추는 인사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간에 많이 사용하는 인사법이다. 이런 인사는 가족, 친지, 가까운 친구 사이에 하는데, 서로 오른쪽 뺨을 맞추거나 상대의 오른쪽 뺨에 입술을 대며 약한 소리가 들리게 하고, 다음엔 왼쪽을 맞춘다. 이때 반가움의 표현으로 양쪽 볼에 2번 이상 뺨을 맞추며 인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악수를 하는 등 일반적 방식으로 인사하면 충분하다.

3) 식사

타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손님을 접대하여 대접하는 것을 즐기며, 가급적 거절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방문 시에는 작은 기념품, 전통 과자류 등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초대를 받은 이후에는 답례 형식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 시에는 간단한 음료(차, 터키식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 약속된 식사시간에 가면 약 1시간은 차를 마시며 환담을 하다가 식사가 시작되므로 사전에 간단한 요기를 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왼손은 불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오른손만 사용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중동국가 중에서는 종교적 색채가 약한 편이다. 바트당 독재시절의 세속주의 통치로 인해 주류를 즐기기도 하고 여성들의 복장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며 외국인들과 어울리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이라크전 이후 억압받았던 시아파 지도자들이 전면에서 나서기 시작하면서 종교적 색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 이슬람에서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행동은 삼갈 필요가 있다. 여성에게 먼저 손을 내어 악수를 청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고, 상대방에게 신발의 바닥이 보이도록 앉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이라크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국가로 특히 북부 이라크 쿠르드지역은 상당한 수준의 자치를 보장받고 있으며 언어도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쓰고 상당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 해당지역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어설픈 아랍어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만 해도 정부의 규제와는 달리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공공기관 방문 시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손님이 오면 대접하던 차도 생수 등으로 대체 되는 경우도 있다. 현지인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외국인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감은 없으며 식사접대 등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로 간단한 선물(현지 고급과자 등)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p>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p>	<p>이라크의 경우 현재까지 SNS를 활용한 전자 상거래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재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p> <p>1) Faceboo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이라크의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으로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구매 결정을 위한 정보를 Facebook 에서 얻는 다는 비율이 60%에 달할 정도 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카드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주재국의 상황상 대부분의 물품은 화장품, 의류, 신발 등 소비재가 일반적이다. ○ 특징: 카드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거의 전무하여 대체로 제품을 받으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 화장품 기업 M사 현지 에이전트의 경우도 바그다드 내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Facebook 등을 활용한 온라인마케팅에 주력 매출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p>2) Instagr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현재까지는 Facebook 이 가장 유력한 온라인 마케팅 툴이지만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Instagram 활용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마케팅 수단으로의 활용도 늘어나고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젊은 층을 위한 화장품,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 소비재가 일반적이다. ○ 특징: 화장품 등의 경우 인플루언서의 사용 경험 등을 활용한 마케팅이 매우 활발하다. <p>3) Miswag (https://miswag.ne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이라크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로 도소매 모두 수행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고용인원: 2014년 오픈하였으며 70만명 이상의 사용자와 250 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은 2020년 기준으로 약 40명 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식품, 전자제품, 주방용기, 미용제품, 정원 제품 등 ○ 특징: 모바일로도 서비스 되고 있으며, 지급 방식은 현재까지 cash on delivery 가 일반적 <p>4) pelemall (https://www.pelemall.c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북부 쿠르드 지역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 * 'Pele' (쿠르드어로 hurry)+'mall'(영어)로 자체 언어·문화를 가진 쿠르드 지역 중심의 플랫폼 ○ 설립연도 : 2011년 Erbil에서 오픈 ○ 주요 판매 품목: 패션, 화장품, 주방용품, 유아용품, 책, 속옷 등 ○ 특징: 모바일로도 서비스 되고 있으며, 지급 방식은 현재까지 cash on delivery 가 일반적 ○ 특징: 배송기간은 10~18일 정도 <p>5) Orisdi (https://orisdi.c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복수의 공급자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일반적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 ○ 설립연도 및 고용인원: 2019년 설립된 바그다드 기반의 온라인 쇼핑 물 ○ 주요 판매 품목: 향수, 식품, 문구 전자제품, 이류 등 ○ 특징: 현금 외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도 가능 <p>6) Tamata (www.tamata.c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이라크 소비자의 특성에 맞춘 소비재 온라인 쇼핑몰 ○ 설립연도 및 고용인원: 2019년 설립된 바그다드 기반의 온라인 쇼핑 물 ○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미용제품, 유아용품, 문구 등 ○ 특징: 세탁 등 서비스 분야 온라인 연결 기능 보유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2019년 상반기 이라크가 전후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알 포 신탄만 컨테이너 터미널 1단계 공사, 방파제 공사 및 이라크 항만청과 이라크 알 포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조성 공사를 연이어 수주했다. 알 포 신탄만은 이라크가 지역 물류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국가 전략적 공사로 향후 이란 등과의 철도 연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공사, 컨테이너 터미널 준설매립공사, 연결도로, 침배터널 등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연결 철도, 드라이 벌크 터미널, 배후 단지 및 해군기지 조성 등 대형 후속 공사의 수주가 유력하다. 2021년 4월 11일 후속공사 착공식에는 총리가 참가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 HDGSK(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SK건설)

국내 4개 대형 건설사가 JV를 구성하여 바그다드 남서쪽으로 120km 떨어진 카르발라 지역에 하루 14만 배럴의 석유정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정유공사를 60억 4,000만 달러에 수주하였다. 이 공사는 단일 플랜트 공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4개 건설사가 협력을 통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해외 공사수주를 위한 국내 업체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카르발라 프로젝트 수주는 해외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수익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수주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 코로나 환자 발생, 공사 대금 원유로 지급 등의 애로가 있었지만, 현재는 안정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3) 한화건설

한화건설의 누적 수주액만 101억 달러에 달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바그다드 동남쪽 10km 지점에 여의도 6배 면적의 지역에 60만 명을 수용하는 주택 10만 호 및 모든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단일 프로젝트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2018년 1월 기준 공정률은 32%인데 비스마야 신도시와 바그다드 중심부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 등 추가공사 수주가 전망되고 있다. 기획·설계·시공의 일괄 수행을 통해 PC 플랜트 등 17개 건축자재 생산공장을 미리 완공해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공법으로 건설공사 추진하고 있다. IS로 인한 치안 위기상황에서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만 2020년 들어 유가하락에 재정난과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6월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4) LG전자

이라크의 경우 낮은 국민소득 등으로 인해 중국산·이란산 저가 품목에 대한 수요가 높고 바이어들이 역시 가격을 중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LG 전자는 2017년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아르빌에 플래그십 상설매장을 오픈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지 에어컨, TV, 세탁기 등 가전 부문에서 고급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현재 바그다드 시내 유명 쇼핑몰에서는 LG 제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TV 등의 제품은 최고급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방품이 등장하는 등의 현상도 생기고 있으며, 한류의 인기로 인해 전자제품 전반에 걸쳐 한국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5) 지사화 기업 K사

2020년 12월 현지 바이어의 수요를 발견하고 적정기업을 찾아 K사와 화상상담 진행. 이후 F/U을 위해 지사화 사업에 참가하고 2021년에만 약 25만 달러를 수출.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물량이 수출되고 있으며 약 50만불의 수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라크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 기업이 독점 바이어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는 위험도 존재하지만 적절한 이라크 협력사를 발굴할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 향후 경기회복이 가시화 될 경우 수출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 일반사항

- 여행금지국가로 우리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득한 후 비자 신청 필요
- 관련 절차 및 비용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신청 전 확인 필요
- 2022년 9월 기준 이라크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주재국 병원에서 발행하는 국제 백신카드 소지가 의무화되었으며 한국 및 제3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발행한 백신카드(또는 상응하는 증빙)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증빙을 제시할 경우 PCR 결과는 제출 불요. 기타 격리 등의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 비자 종류

- 도착비자 : 2021년 3월 15일부터 도착 비자제도(on-arrival visa)가 시행되어 한국인들의 경우 공항 도착 후 비자 카운터에서 도착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 . 대상국 : UN 상임이사국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EU 소속 국가,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37개국
 - . 방법 : 도착 후 공항(또는 항구 등)에서 비자 발급
 - . 비용 : 75달러(2022. 9월 기준), 2개월 유효
 - . 주의사항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백신 접종 증빙 등은 여전히 필요
- 단수비자 : 3개월 유효, 최대 60일 체류 가능
 - . 방법 : 주재국 이라크 대사관에 비자요청레터 및 사진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발급
 - . 비용 : 50달러(2022. 9월 기준)
 - . 주의사항 : 주한이라크 대사관의 경우 도착비자로 안내하고 있어 한국인의 경우 단수비자 발급이 사실상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불요
- 복수비자 : 3개월 이상의 체류 시 필요한 비자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기업의 파견직원 등에 해당)
 - . 방법 : 발주처(이라크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와의 협의를 통해 비자케어블(비자발급 요청레터)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스티커 형태로 여권에 부착
 - . 비용 : 100 달러~150 달러(기간 등에 따라 상이)
 - . 주의사항 : 동 비자의 경우 이라크 내 수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 또는 하청 기업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체류 비자로 입국 전 관련 절차를 진행 후 입국해야 한다.
 - 기타 순례객 비자, 단순통과 비자 등이 있으나 우리국민들과는 큰 상관이 없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휴대품은 면세이다. 전시회 물품의 경우 사전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하물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클 경우 짐 검사를 통해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1) 외화 반·출입 한도

1 만 달러 이하의 현금 (1만 달러 초과 2만 달러 이하의 경우 목적을 밝혀야 하며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지)

2) 휴대품 면세 한도

- 술 1리터 이하
- 200 개비에 해당하는 담배, 담배 연초 250 그램, 시가 20개
- 향수 500mL 이하
- 의약품의 경우 여행 중 필요한 소량의 의약품은 반입이 가능하나, 장기간 복용 필요 시 의사의 처방전과 함께 휴대가 가능
- 기타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의 물품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이라크대사관

전화번호	+964-770-725-2006
주소	Villa W5, Dijla Diplomatic Compound Green Zone,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iq-ko/index.do
비고	근무시간 : 일-목, 08:00-16:00 (비자 접수 10:00-12:00)

○ 주 이라크대사관 아르빌 분관(아르빌)

전화번호	+964-750-790-1678
주소	Rotana Hotel, Gulan Street, Erbil, Iraq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iq-ko/index.do
비고	근무시간 : 일-목, 08:00-16:00 (비자 접수 10:00-12:00)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전화번호	+964-790-611-4668
주소	P.O. BOX 2615 Al Jadriya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KBC/baghdad/KTMIUI010M.html
비고	근무시간: 일~목, 08:00~16:00

○ KOICA 바그다드 사무소

전화번호	+964-781-803-5323
주소	P.O. BOX 2615 Al Jadriya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irq_kr/index.do
비고	근무시간: 일~목, 08:00~16:00KOTRA 무역관과 동일 건물 2층에 위치

○ KOICA 아르빌 사무소

전화번호	+964-750-543-2302
------	-------------------

주소	Naz City, Building F, Flat No.9, Erbil, Iraq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sites/irq_kr/index.do
비고	이라크 북부 KRG(쿠르디스탄 지방정부) 수도인 아르빌 소재

〈자료원 : 주 이라크대사관 홈페이지 , KOTRA, KOICA〉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전화번호	+964-771-100-5110
주소	Yafa street, Baghdad, Iraq 10011
홈페이지	https://mop.gov.iq/en/

○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

전화번호	+964-780-812-0980
주소	Arbataash Tamuz St,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investpromo.gov.iq/

○ Iraqi News

전화번호	+973-1619-8858
주소	Al Moayyed Tower, Suite 1900, Seef District 428, PO Box 20450, Manama, Bahrain
홈페이지	https://www.iraqinews.com/

○ Al Bawaba Middle East

전화번호	+962-6-565-8322
주소	The Plenary, 4th Floor, 74 Abdel Hamid Sharaf Street, Amman, Jordan
홈페이지	https://www.albawaba.com/iraq

○ 석유부(Ministry of Oil)

전화번호	+964-782-557-0640
주소	Bur Said Street,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s://oil.gov.iq/

○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ity)

전화번호	+964-782-374-9376
주소	14th July Street, Arbataash Tamus, Baghdad, Iraq
홈페이지	https://moelc.gov.iq/

○ 무역부(Ministry of Trade)

전화번호	+964-771-404-5179
주소	Baghdad, Damascus Street(전력부 인근)
홈페이지	https://mot.gov.iq/

○ National Iraqi News Agency (NINA)

전화번호	NA
주소	Baghdad, Al Saadoon Street
홈페이지	https://ninanews.com/website
비고	국영언론

○ 관세청(General Customs Commission)

전화번호	964-780-060-0080
주소	Iraq, Baghdad, Nidhal Street White Palace Area In front of Mosul Bank for Development & Investment.
비고	관세율 등 관련 문의 가능하나 대답이 매우 늦기 때문에 무역관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460 IQD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현지 판매 일반 햄버거)	단품	4.760
2	식품	KFC	치킨 2~3조각 포함 단품	5.440
3	교통	시내버스요금(민영 미니버스)	기본요금	0.680
4	식품	신라면	1봉지	2.04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최대사이즈)	1잔	6.80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17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340
8	의료	항생제	12정(500mg)	2.040
9	교통	시내버스요금(일반버스 국영)	기본요금	0.340
10	교통	시내버스요금(민영)	기본요금	0.680
11	교통	택시요금	일반 시내 1 회 이동 시 (거리당 약 1,000 디나르를 청구하는 업체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터기 없이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6.80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7.0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0.30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가정요금 최저 기준)	0.01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6.800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정품)	1갑	6.80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5.000
18	임금	최저임금(월)(1달러=1,470IQD기준)	관련 법률 미비. 이라크 정부 근로자 초임 기준으로 기재	201.0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터키 스쿨 기준)	연간	4000.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이라크 정책금리 기준)	%	4.000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이라크의 공식 통화는 이라크 디나르(Dinar)이며 약어로는 통상 ID 또는 IQD(Iraqi Dinar)로 칭한다. 대체로 달러화 교환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Money Exchange라고 쓰여있는 시중 환전소에서 쉽게 은행 환율과 차이 없이 환전할 수 있다.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환율은 달러 대비 1,460 이라크 디나르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환율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정환율 개념의 기준환율이 있지만 실제 환율은 중앙은행에서 실시하는 외화 경매에 따라 1차 결정되고, 개인들의 경우 환전소 은행 등을 이용할 때 또다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9년 은행 고시환율은 1달러당 1,190이라크 디나르였으나 연간 시장환율은 1달러당 1,200이라크 디나르를 유지했다.

2020년 11월 기준 은행 고시환율은 1달러당 1,190이라크 디나르인 반면 환전상의 환율은 1달러당 1,250 이라크 디나르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2021년 5월 기준 은행 고시환율은 1달러당 1,460이라크 디나르인이며, 실제 시장에서의 환율은 2022년 5월 1일 기준 아래와 같다

○ 바그다드 : (살 때) 100달러 당 148,250 이라크 디나르 (팔 때) 100달러 당 147,250 이라크 디나르

○ 에르빌 : (살 때) 100달러 당 147,800 이라크 디나르 (팔 때) 100달러 당 147,600 이라크 디나르

환전방법

현지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현지화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가격도 적혀있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달러화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고객의 현지화를 교환할 필요는 없지만, 달러화를 결제할 경우 1~2달러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시중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이라크 디나르로 미리 환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환전소와 호텔 간 환율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환전은 호텔에서 해도 큰 상관이 없다.

신용카드 이용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받지 않으며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은 일부 특급호텔 등에 국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급호텔에서도 시스템상의 장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 사용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0%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달러화 등 현금을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결제의 경우에도 주문 후 물건이 배송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cash on delivery) 방식이 주로 이용되어 카드를 이용할 경우가 거의 없으나 최근 일부 온라인 구매 사이트 등에서 신용카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라크 내에서도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함으로 카드 사용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우천 시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다. 또한 매일 여러 건의 총기, IED 폭탄 테러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 출입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며 테러 다발지역인 바그다드 내 사드르시티, 카라다 지역, 안바르주 라마디-팔루자 간 고속도로를 비롯한 과거 IS 장악지역 등지에 대한 방문은 절대 삼가야 한다. 2019년 11월에 프랑스 인이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납치된 경우도 있어 이동 시에는 반드시 경호업체의 지원을 받아 방탄차로 이동해야 한다.

참고로 이라크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운전면허증을 교환해서 운전할 수 없으며 국제운전면허증도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버스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버스는 없으며 현지인들이 활용하는 노선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다만 현지의 치안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Green Zone 같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은 경호원을 대동한 방탄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가 운전의 경우 이라크는 국내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호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교통환경 하에서 운전하는 것은 치안을 차지하고서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거주자가 아닌 출장자의 경우 경호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택시

이라크 내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한 일반 택시 및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라크 현지인들도 테러 안전문제를 우려해 신분 노출을 꺼리는 환경에서 외모의 차이로 인한 확연한 신분 노출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각국 대사관 및 주요 정부부처가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 지역인 Green Zone과 같은 안전지대를 제외하고는 장·단거리 구분 없이 방탄차량을 이용한 경호를 대동해야 한다. 여행금지국인 이라크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용허가 판단요인은 치안 확보이기 때문에 출장을 와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다. 통신

핸드폰

2004년 1월 초부터 ORASCOM에 의해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Zain, Asia Cell, Korek Telecom 등 3개사가 2007년 8월부터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갖고 운영 중이다. 하단의 통신업체들은 전화 연결이 자주 끊기는 등 통화 품질이 열악하며 바그다드 시내를 벗어나

면 전화 송수신이 어려운 등 서비스 수준은 발전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해외 로밍, SMS, 음성사서함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는 3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4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속도나 품질이 열악해 국내와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라크에 장기출장을 올 경우 상기 3개사의 유심카드 및 선불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휴대폰 선불카드는 세금포함 60,000이라크 디라르(50 달러), 120,000이라크 디나르(100 달러)이며 각각 50,000이라크 디나르, 100,000이라크 디나르 내에서 통화 및 데이터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통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국내 이동통신사의 로밍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도 있다.

◦ Zain

쿠웨이트의 Zain Group이 30% 지분을 갖고 있는 이라크 내 최대 모바일 사업자이다. MTC Atheer란 브랜드로 2003년 10월 사업권을 획득한 후 2004년 8월부터 이라크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오다가, 2007년 8월 이라크 정부의 15년 장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시 선정됐다. 이후 입찰 과정에서 포기한 이집트 Orascom의 Iraqna를 인수함으로써 이라크 내 최대업체가 됐다.

◦ Asia Cell

공식명칭은 Asiacell Telecommunications Co., Ltd.로 Zain에 이어 두 번째 모바일 사업자인 Asia Cell은 이라크에서 가장 오래된 업체이다. 지난 1999년 쿠르드 술레이마니아 지역에 국한된 서비스를 시작한 Asia Cell은 2003년 10월 MTC Atheer 및 Iraqna와 함께 이라크 모바일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쿠웨이트의 Wataniya Telecom사 주도 컨소시엄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다 (Wataniya Telecom사는 카타르의 Q-Tel이 운영함). 비록 사업 시작은 이라크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2005년 1월부터 통신망 확충 투자를 시작해 2007년 8월에 전국적인 사업자로 재선정되었다.

◦ Korek Telecom

세 번째 모바일 사업자로 2000년 11월부터 쿠르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07년 8월, 이라크 정부로부터 이라크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사업자로 선정됐다.

인터넷(와이파이)

후세인 정권하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정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됐으며 극히 일부 이라크인들만 이용이 가능했다. 2002년에 이라크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만 5,000명 수준으로 아주 낮았으나 2003년 이후 이라크 독자적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인 Uruklink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어 몇몇 외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환경이 조성돼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라크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에 지나지 않으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식 통계자료에 의한 인터넷 이용률은 매우 낮지만 실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공식통계자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5년부터 통신사들이 3G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0년 기준으로 약 3,560만 명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유선인터넷을 위한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인터넷 보급이 확대됐기 때문에 유선보다는 무선 인터넷이 주로 이용되고 있고 위성에 의한 인터넷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Uruklink, ALJAZEERA TELECOM, Earthlink, ZAIN, Skynet 등이다.

인터넷 이용료는 IP 1개당 월 100~300달러 수준으로 매우 비싸지만 최근 다양한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더 저렴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 회사별 인터넷 요금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가입을 위해서는 여러 인터넷 회사의 자료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속도는 대체로 50~100kb 수준으로 최근에는 1메가바이트 이상의 인터넷도 등장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안정적이고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지 않고 속도 저하 및 인터넷 단절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 또는 전국 학생시험 부정행위 등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화상통화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나 음성통화는 오히려 통신사업자 서비스보다 나은 경우도 많다. 또한 최근 서비스질 향상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ZOOM 등의 글로벌 서비스나, 카카오톡 페이스톡 등의 화상 통화도 일부 이용 가능하다.

라. 관광명소

○ 지구라트(Great Ziggurat of Ur)

도시명	Nasiriyah
주소	Dhi Qar, Nasiriyah
운영시간	09:00~18:0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계단이 함께 있는 피라미드 형태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세워진 지구라트는 이라크 및 이란 지역에서 발견된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기원전 약 2,100년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지구라트 중 가장 유명한 유적이다.

○ 이라크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Iraq)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Nasir Street, Baghdad, Iraq
운영시간	08:00~14:30
휴무일	매주 금요일 휴관
명소소개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페르시아 문명에 대한 방대한 사료를 보유한 바그다드 최대 박물관
비고	보수 문제로 문을 닫았다가 2022년 재 오픈

○ 압바스 왕궁(The Abbasid Palace)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al-Maiden district Baghdad
운영시간	08:00~14:30 (변동 가능)
휴무일	매주 금요일 휴관
명소소개	서기 750~1258년 압바스 왕조의 건축물로서 티그리스 강이 보이는 바그다드의 알마이덴에 지어진 2층 건물이다. 이슬람의 황금시대라 일컬어질 만큼 문화적,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왕조였던 만큼 왕궁의 건축은 경교하고 화려하다.

마. 식당

- 현지식당

○ 오윤 바그다드(Oyoon Baghdad)

도시명	바그다드
전화번호	+964 780 444 4001
주소	Baghdad, Arasat, Al Hindya Al Sadda str.
가격	50~100달러
영업시간	12:00~24:00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치안이 좋은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이라크 전통 식당
비고	목요일 및 금요일 저녁, 이라크 가수 공연

○ 바빌론 레스토랑(Babylon Restaurant)

도시명	바그다드
전화번호	+964 7717249451
주소	Green Zone, Babylon Compound, Baghdad (next to the US embassy)
가격	15~50 달러
영업시간	12:00~24:00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그린존 내에 위치한 식당으로 고급 식당은 아니나 그린존 내 거의 유일한 식당으로 대사관 및 국제기구 직원들이 많이 이용

○ 플로팅 레스토랑(Jadriya Floating Restaurant)

도시명	바그다드
전화번호	964-782-110-0101
주소	Abi Nawas Street, Al Jadriyah, 10069 Baghdad, Iraq
가격	50 달러에서 100 달러 수준
영업시간	08:00~23:00 (변동 가능)

휴무일	없음(변동 가능)
소개	강변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이라크식 및 일반 양식 제공. 카페(Ward Café) 도 같이 있음.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 한국식당
없음.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o 바빌론 호텔(Babylon Rotana Hotel)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Karrada Street, Al-Jadria, Baghdad, Iraq
전화번호	+964 750 522 3333
홈페이지	https://www.rotana.com/rotanahotelandresorts/iraq/baghdad/babylonrotana
숙박료	260달러
소개	바그다드 그린존 외부에 위치한 호텔 중 가장 안전한 5성급 호텔

o 라시드 호텔(Royal Tulip Al Raseed Hotel)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Baghdad Tower, Baghdad, Iraq 08070
전화번호	+964 770 013 3370
홈페이지	https://royal-tulip-al-rasheed-hotel.goldentulip.com/
숙박료	280달러
소개	바그다드 그린존 내에 위치한 유일한 호텔(5성)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o 도조(Dojo's)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14th of July St, Baghdad, Iraq
전화번호	+964 771 009 8000
숙박료	200달러

소개	바그다드 그린존 내에 위치한 1일 3식을 제공하는 게스트 하우스
----	-------------------------------------

○ 이든 라이트 게스트 하우스(EdenLight Guest House)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Mansor, Baghdad, Iraq
전화번호	+964-0783-060-3326
숙박료	200달러/일 (3식 제공, 인터넷 포함)
소개	한국인 경비 경호업체에서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사. 치안

치안상황

이라크는 외교부에서 정한 여행금지 국가 중 하나로 입국 시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 국가이다. 따라서 바그다드를 비롯한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 주요 도시는 대부분 위험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상대적으로 IS 잔존세력의 위협이 덜한 바스라 등 남부 지역에서는 최근의 경제침체, 중앙정부 치안부재 등으로 인해 납치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회사를 대동하지 않은 불필요한 외출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역시 테러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

또한 ISIS 반군이 점령하였던 이라크 북서부 안바르주, 키르쿱주, 살라후딘주 및 니네베주는 여전히 IS 잔존세력이 여전히 출몰하고 있으므로 출장 시 현지인사의 초청을 받더라도 이 지역의 방문은 가급적 거부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라크를 2020년 7월 31일까지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할 정도로 이라크의 치안 상황이 일거에 좋아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 없이 바그다드 시내를 물론 위험한 시 외곽 지역으로의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0년 7월 중 저명한 IS 권위자가 바그다드의 본인의 집 앞에서 괴한의 총격에 피살된 사례도 있어 외국인의 경우 치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종파간 갈등, 반군과의 대립 등으로 각종 시위가 자주 발생하는데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각종 정보 획득은 물론 응급상황 시 나의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영사콜센터 +822-3210-0404를 통해 해외 사건·사고 접수, 신속 해외송금, 이라크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 민원 상담이 가능하며 2020년 11월 부터는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등도 실시 중이다.

1) 교통사고

먼저 주 이라크 대사관(+964-770-725-2006)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사진 촬영해야 한다.

장기 입원하게 될 경우, 국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인시켜주고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공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안이 위급해 국내 가족이 즉시 현지로 와야 하는 경우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 관련 협조를 구해야 한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영사콜센터나 주 이라크 대사관(+964-770-725-2006)으로 연락해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라크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가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경호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관련 위험을 사전에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여권/지갑 분실

해외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했다면 주 이라크 대사관(+964-770-725-2006)에 연락해 지원받아야 한다. 분실한 여권 대신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T/C, 이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행증명서 발급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
- 여권 사진 2장
-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교통편의 티켓 등

또한 분실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통해 최대 미화 3,000 달러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응급전화번호(화재/범죄/의료)

- 화재: 소방서(115)
- 범죄: 경찰서(104)
- 의료: 응급구조대(122), 병원응급실(+077-5842-6845)

4) 부당한 체포 및 구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르고 주 이라크 대사관((+964-770-725-2006)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해야 한다.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함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5) 인질/납치

납치가 되어 인질이 된 경우, 자제력을 잃지 말고 납치범과 대화를 지속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눈이 가려지면 주변의 소리, 냄새, 범인의 억양, 이동 시 도로상태 등 특징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은 삼가고,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음성녹음을 원할 경우 응하도록 해야 하며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된 경우,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선불리 범인과 대적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납치범과 대적할 경우,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인질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6) 테러/폭발

먼저 주 이라크 대사관(+964-770-725-2006)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총기에 의한 습격일 때는 자세를 낮추어 적당한 곳에 은신하고 경찰이나 경비요원의 대응사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폭발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바닥에 엎드려 신체를 보호하며 엎드릴 때는 양팔과 팔꿈치를 갈비뼈에 붙여 폐·심장·가슴 등을 보호하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덮어 목 뒷덜미, 귀, 두개골을 보호해야 한다.

통상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폭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미리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동 시에는 낮게 엎드린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화학테러(독가스 등 생화학 테러 포함)는 눈물과 경련,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호흡곤란, 균형감각 상실 등의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땐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멈춘 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신속히 현장을 탈출해야 한다. 병원균이나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테러의 경우 호흡기, 피부에 난 상처, 음식물 섭취 등을 통해 감염되고 전염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복통, 설사, 땀, 인후염, 피부발진, 안구출혈,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근에 의심물질 누출되었을 경우 손수건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코와 입을 가린 채 신속히 현장에서 대피하고 물과 비누로 노출된 피부를 조심스럽게 씻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특이증상이 없는지 살펴 봐야 한다.

방사능 테러는 폭발을 감지해도 특수 장비가 없다면 방사능 물질로 인한 오염이 발생했는지 감지하기 어렵다. 핵 폭발지역에 있을 경우 비상대피소로 대피하거나 실내에 있을 경우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빈틈없이 닫아두어야 한다.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 매물을 확인한 다음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 주택 임차료 : 위치나 주택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나 바그다드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 그린존 : 아파트(약 100 s/m) 의 경우 1,200 달러 수준이며 소형주택(약 200 s/m 이상)의 경우 1 만 달러 수준, 대형주택(1,000 s/m 내외)의 경우 2만 5,000 달러 수준
 - Qadisiya : 아파트(약 100 s/m) 의 경우 1,200 달러 수준이며 소형주택(약 200 s/m 이상)의 경우 2,000 달러 수준, 대형주택 (1,000 s/m 내외)의 경우 2만 달러 수준
 - Mansoor : 아파트(약 100 s/m) 의 경우 1,000 달러 수준이며 소형주택(약 200 s/m 이상)의 경우 2,500 달러 수준, 대형주택 (1,000 s/m 내외)의 경우 2만 달러 수준
- 유의사항
 - 상가 주택은 일부 현지인들만을(주로 대사관, 국제기구 등 해외기관 근무 현지인) 위한 것으로 그린존 내외를 불문하고 외국인의 경우 치안문제로 사무실과 주택이 통합된 형태의 임차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
 - 쿠르드 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의 경우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1,200 달러/월 수준의 임차료로 임차가 가능하나 치안이 확보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살기는 어렵고, 외국인의 경우 대체로 바그다드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주택'형태의 임차 계약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아직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해야 하며 주택임차 비용에 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화

○ 유선전화

2006년에 전화 회선 수가 인구 100명당 평균 4회선으로 2001년 평균인 2.9회선에서 증가해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최근 휴대전화의 보급 확대로 유선전화는 더이상 보급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사용자들도 오히려 유선전화를 해지하는 등으로 인해 지금은 거의 유선 전화가 사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팩스 서비스도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인 도혹, 아르빌, 술레이마니아 지역에도 유선전화는 개통돼 있으며 연결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국제전화 서비스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부 정부 부처의 경우 유선 전화번호가 기재된 안내 페이지 등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전화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키르쿠크 지역도 지방 유선전화는 개통돼 바그다드까지 연결돼 있다.

이라크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0082-지역 번호-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되며, 국제전화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이라크로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001-964-1-(유선전화번호) 또는 001-964-790 or 780-(휴대폰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된다.

○ 휴대전화

2004년 1월 초부터 ORASCOM에 의해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Zain, Asia Cell, Korek Telecom 등 3개사가 2007년 8월부터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갖고 운영 중이다. 통신업체들의 경우 전화 연결이 자주 끊기는 등 통화 품질이 열악하며 바그다드 시내를 벗어나면

전화 송수신이 어려운 등 서비스 수준은 발전이 필요한 상태이다. 2013년부터는 4G LTE 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전쟁의 영향으로 통신인프라가 파괴되어 현재 인터넷 속도는 3G 수준이다. 그럼에도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대부분의 사무실의 경우 유선전화도 없고 특정 번호를 한국의 사무실 번호처럼 사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카톡 등 한국에서 사용하던 서비스는 대부분 사용가능하며, 일부 중동지역 국가에서 행해지는 인터넷 기반 통화에 대한 특별한 제재는 없다. 그러나 대용량 파일 전송, 동영상 재생 등에는 애로가 있으며 일부 SNS의 경우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전압/플러그

이라크 전력은 모든 가구의 98%가 공공전력망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가구의 78%는 파이프를 물 공급을 받고 있다. 또한, 모든 가구의 37%는 하수도 처리 시설에 연결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기능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78%와 파이프를 연결돼 물을 공급받는 가구의 66%는 심각한 공급의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 전력공급 시간은 평균적으로 하루 24시간 중 14.6시간에 지나지 않으며(공공 및 민간 전력망을 통한 시간 합산), 이 같은 전력 부족은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여름철에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다수의 가구에서는 소형발전기를 통해 자가발전을 하거나 지역 민간업체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실정이다. 하계의 옥외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므로, 바그다드 진출업체들의 경우 호텔 등에서 사무공간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자가발전기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하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루 몇 차례 정전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PC 등 업무용 기기의 경우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다. 플러그나 소켓은 C, D, G 타입을 사용하고 있다.

식수

하수도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티그리스 강 등 주요 하천이 오염되어 있고 남부 지역에서는 염분이 포함된 수돗물이 공급되는 경우도 있다.

가능한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생수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양치질을 할 경우에도 생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식당의 경우 수도물로 얼음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음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 고급 생수도 판매하나 현지 정제수(Purified Water)의 경우 500ml 에 0.2 달러 내외의 가격에서 판매하고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인용과 정부 관청용 구입방법

- 정부 관청용 차량 구입 : 국영회사인 GAMCO(General Automobiles and Machinery Co)에서만 구입이 가능

(www.gamcoiraq.gov.iq)

- 개인용 차량 구입 : Albayaa, Alnahdha, Alwazeriya, Aladhamiya, Alhabibiya 등지에 소재한 차량 전시장을 활용한 차량 구입

- 방탄 차량 : 주로 두바이에 있는 전문 딜러를 통해 구입

○ 차량번호판 등록

- 교통부(MOT) 산하에 General Directorate of Traffic에서 차량 등록번호판을 받을 수 있으며 쿠르디스탄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

차량가격

한국산 자동차 산타페를 예시로 들면 신차는 약 37,000 달러(2022년 기준) 중고차는 연식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2018년형이 22,500 달러 선에 거래된다.

현지에서 많이 거래되는 차량의 가격은 아래와 같다.

- KIA K5 (신차) 25,950 달러, (2020년 식, 17,000 km) 22,500 달러 , (2018년식, 3만 km)15,550 달러
- KIA Cerato (신차) 20,750달러 , (2020년 식, 9,000 km) 18,750 달러 , (2018년식, 4만 8,000 km)16,100 달러
- KIA Seltos (신차) 22,850 달러 , (2020년 식, 25000km) 19,150 달러 , (2018년 식, 6만 1,000 km)16,750 달러
- 현대 Tucson (신차) 29,000 달러, (2020년 식, 22,000km)25,150 달러, (2018년 식, 36,000 km) 21,500 달러
- 현대 elantra (신차) 23,500 달러, (2020년 식 21,000 km) 19,200 달러, (2018년 식 53,000 km) 17,750 달러
- Toyota CAMRY (신차) 38,230 달러, (2020년식, 19,000 km) 29,000 달러, (2018년식, 69,000 km) 24,800 달러
- Toyota Corolla (신차) 26,000 달러, (2020년식, 28,000 km) 18,450 달러,(2018년식, 80000 km) 16,000 달러
- Toyota CROSS(HYBRID) 27,560 달러 (신차)

(2022년 5월 기준, 가격은 달러기준, 상기 가격은 구매처,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고차의 경우 대표적 가격으로 주행거리, 옵션 등에 따라 차이가 큼)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탄차를 타는데 Toyota Land cruiser 모델은 5년 이내 중고차량은 8만~10만 달러, 신차는 15만 달러 선에서 거래된다.

운전면허 취득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운전면허증을 이라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더라도 외교관이 아니라면 현지 면허증으로의 교환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지에서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꼭 필요한 경우 유효한 국제운전 면허증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주재원이 해외송금에 유리한 은행은 TBI(Trade Bank of Iraq)와 Al Rafidain 은행이 있다. 이라크는 아직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가 서명만 체결되어 있어, 은행에 입금된 예금,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급여는 추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달러화 계좌를 개설 할 경우, 센트 단위는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인출 시 센트 단위는 청구서에 기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송금 등에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되고 은행 명세서 발급 비용을 청구하는 등 구좌 보유에 따른 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또한 잔액이 있음에도 외화가 부족하다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경우 대부분 개인계좌를 만들지 않고 있으며, 실제 이라크인들의 구좌 보유율도 20% 대에 그치고 있다.

계좌 개설방법

개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서나 서류(여권, 체류허가(Residence Permit), 거주지 주소, 사진 2매)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상기 서류를 제출하고 2주 후 계좌가 개설되며 별도로 통장을 지급해주지 않으니 은행잔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잔고증빙을 받

급받아야 하며 1회 발급 시 2달러 내외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TBI(Trade Bank of Iraq)를 기준으로 회사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구된다.

- 1- Copy of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certified by the registrar of companies.
- 2- Copy of the Article of Association and Memorandum of Association of the company.
- 3- Copy of the minutes of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mpany for opening the account.
- 4- The authority of the board/ power of attorney in favor of the person(s) opening the account.
- 5- Photograph of the authorized signatories.
- 6- Copy of personal identification document like passport of the authorized signatories and the person(s) authorized to open the account.
- 7- Bank reference along with list of existing Bankers.
- 8- A copy of the last audited financial report.
- 9- Proof of address in Iraq.
- 10- Activities undertaken/ to be undertaken in Iraq, along with a copy of the approval from the local authorities to carry out the business / activities.
- 11- All copies are to be duly notarized.
- 12- Seal and stamp of the company.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Baghdad International Private Schools

도시명	Baghdad
커리큘럼	영국제 학제
학비	US\$3,000
홈페이지	http://www.bisiq.net/?fbclid=IwAR2517DnX1ZNP1z9zAwblNaE8bVXE4JeMWieUwUyJVoko4AwEcQ1kEseqkl
비고	UNDP의 지원으로 1969년 설립되어 1987년 500여 명의 다국적 학생이 학교를 다녔으나 현재는 이름만 국제학교 실제로는 이라크 학생만 재학 중임.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무역관>

- 현지학교

o Al Hariri High School for Girls, Al Hariri Primary School

도시명	Baghdad
커리큘럼	중·고등학교 통합과정
비고	Iraq, Baghdad Adhamiya, 1953년 설립

마. 병원

○ Ibn Sina Hospital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Baghdad, Iraq, Al Karkh 228, Hay Al Tashree, International Zone
전화번호	+964-775-842-6845
진료과목	내과, 외과, 기본검진
비고	정부 의료기관으로 검진료는 무료이다. 그러나 시설이 낙후하여 외국인들의 경우 위급한 상황외에는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 Yarmouk Teaching Hospital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Jinub Street, Baghdad, Al-Karkh, Al-Yarmouk, Iraq
진료과목	종합병원(전쟁으로 인한 부상자 치료에 특화)
비고	1964년 설립. 이라크 내 최대 응급시설 보유, 교육연구 시설과 연계.

○ Royal Private Hospital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Iraq, Baghdad, Rabee St., Hay al Jamea
전화번호	964-770-600-2005
진료과목	심장외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Baghdad Mall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Baghdad Mall, Al Harthiyah, Baghdad, Iraq 133983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Baghdadmal/

비고	2017년 8월 오픈한 바그다드 최대의 쇼핑몰로 치안이 좋아 외국인 쇼핑객이 갈 수 있는 장소임.
----	--

○ Al Mansour Mall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Al Mansur St, Baghdad, Iraq 00964
비고	2013년 7월 오픈한 바그다드 쇼핑몰로 치안이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음.

○ Dream City Mall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Iraq, Baghdad, Zayoona Area, Al Rubaie t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dreamcitymall/
비고	2020년 12월에 오픈. Baghdad Investment Commission 에서 후원한 프로젝트로 상점, 극장,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 식품점

○ Cozmostore

도시명	바그다드
주소	Baghdad Mall, Al Harthiyah, Baghdad, Iraq 133983
취급 식료품	식료품 전품목
비고	2017년 8월 오픈한 바그다드 최대의 쇼핑몰 내에 위치해 있어 치안이 좋아 외국인이 식료품을 구입하는 장소임.

○ Carrefour

도시명	아르빌
주소	Erbil Royal Mall, Shores Bridge, Erbil, Iraq 44001
취급 식료품	식료품 전품목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없음.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신정	2023-01-01	2023-01-01
이맘 무사 알 카딤 순교일	2023-02-16	2023-02-16
춘절(봄축제)	2023-03-21	2023-03-21
이드알피트르	2023-04-23	2023-04-21
노동절	2023-05-01	2023-05-01
이드 알 아드하	2023-07-02	2023-06-28
혁명기념일	2023-07-14	2023-07-14
알 히즈라무하람	2023-07-18	2023-07-18
아슈라	2023-07-27	2023-07-27
예언자 탄신일	2023-09-26	2023-09-26
독립기념일	2023-09-03	2023-09-03
독립기념일	2023-10-03	2023-10-03
승전기념일	2023-12-10	2023-12-10
성탄절	2023-12-25	2023-12-25
임시공휴일	2023-01-05	2023-01-05
국군창립일	2023-01-06	2023-01-06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10. KOTRA 무역관 안내

○ 바그다드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무역관 주소: Iraq, Baghdad, International Zone, Al-Kindi Area, District 215, Street 9, House No. 12,
- 우편물 배송주소: Iraq, Baghdad, Al Jadriya , P.O. BOX 2615 (배송 전 무역관에 사전 협의 필요)
- 무역관 연락처: +964-772-224-4629

공항-무역관 이동

대중 교통이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바그다드 공항을 포함한 이라크 내 모든 공항 주변의 치안 상황이 극도로 열악하므로 테러, 납치, 종파 간 분쟁 등으로 인한 과격 단체의 폭동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경호업체를 활용, 공항에서부터 방탄 차량을 이용한 경호를 대동해야 한다. 렌트 차량 자가 운전이나 공항 인근 호객행위를 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무역관이 소재한 그린존으로 올 경우에는 경호회사 또는 운전자가 그린존 출입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출입증이 없는 경우 무역관으로 미리 연락을 주시면 체크포인트(그린존 입구)에 무역관 차량을 보내 픽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내 소재 호텔 등에서 미팅을 할 경우에는 무역관장이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호텔이 인근지에 소재할 경우 호텔로 무역관에 미리 전화하면 무역관에서 요청자(방문예정자)의 위치로 차량 픽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